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Universal Care

선교회지 DEC 2012 '겨울' 호 통권 13호 2쇄

Universal Care

宣 선 教 고 地 지

大 韓 民 國

宣 教 地 大 韓 國

www.cyworld.com/universalcare

통권 13 호

한국 내 외국인 선교 / 다음세대 선교 / 통일선교

2012.12.08.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1쇄 2012.12.08
2쇄 2012.12.15



Designed by 강가영
표지설명
선교지 대한민국 !
“통일 코리아!, 주님 하나된
이 땅에서 종일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Contents

01 Prologue 선교지 대한민국! /정진호

선교지 대한민국!

04 동행 /황하람 집사

10 선교지 대한민국! /김영제 목사

23 선교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황필남 선교사

33 국내 외국인사역 /서기원 목사

38 열방을 품은 교회를 꿈꾸며 /정태화선교사

44 우즈벡 근로자 외국인 사역 사례를 통한 / 김아굴라 선교사

47 제자로 양육하여 선교사로 재파송하라! / 송성규 목사

51 동포 사랑 치과/ 이미영

55 다음 세대를 위하여/최달호 목사

62 침체 된 다음세대 사역의 유일한 희망은../ 양진수

66 한국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서 /김우섭선교사

72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변화... /홍성훈 목사

78 북한을 통한 통일 선교 / 박인용 목사

87 통일 준비의 시작은 탈북민을 섬기는 것.../강다니엘선교사

93 “주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탈북민 이사라

●————●————●————●————●————●

98 “2012 러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박수경

선교지에서

102 러시아 로스톱 날다 누 /김우섭 선교사

104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109 B국 /주바울 선교사

112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

121 선교사 기도제목 & 선교회 소식

128 Universal Care 는?

Prologue

선교지 대한민국!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출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7 :22~23)

지난 추석 연휴 러시아 연해주 아웃리치를 섬기면서 주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근 1 세기 동안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십자가 앞에서 헌신의 제단을 쌓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해주의 땅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땅이요, 북한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여 살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요셉의 창고’로 쓰임 받길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님과 비전을 나누면서 한국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하려면 외국인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민족이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고 자연스럽게 부흥되고, 다시 본토 땅으로 재파송되는 선순환이 일어 날 것이요, 이제 좀 더 큰 선교의 그림을 그려가야 할 한국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47 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외국인들을 우리와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 Korea’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귀중한 선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땅도 역시 ‘선교지(mission field)’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지 대한민국’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의 아픔에 대하여 느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는 말씀은 저를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2 만 5 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면에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아픔으로 오늘 ‘선교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10 만 선교사’를 약속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놀라운 풍요와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 때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연하게 그 자리에서 모두 선교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직접 전방에서 전투를 감당하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싸우며 언제든 전투의 최접전 지역으로 달려가 함께 싸울 후방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선교지 대한민국은 부흥할 것이며, 주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 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끄기리라”
(요한계시록 2:5)

“10만 선교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그러나 이 땅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선교자임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14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선교지 대한민국

한국 내 외국인 선교 「다음세대 선교」 통일선교

강사: 김영제 목사 (선교중앙교회 담임)

전 우즈벡 선교사 | 현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교 교장(구 소련권 학생대상)

2012.12.08 (토) 오후5시 월드와이드교회 6층 로뎀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

선교지 대한민국!



동 행



황하람

부천몽골교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내게, 이렇게 글 쓰는 일은 많이 서툴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표현의 정직함과 글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부천 몽골교회에서, 우리의 몽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예배자 황하람입니다.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두 번의 기회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의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어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심과 성실함 속에서,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한 필요성의 이해차이와, 준비의 부족함을 보면서, 혼자 언어에 대한 통증을

겪으며 아파했었습니다.

당시 내 모습은 팀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넘어진 자요, 시험 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이 없이, 그렇게 아픈 모습 그대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나 봅니다.

내가 지금 부천 몽골 교회에 있게 된 이유의 전부가, 몽골 언어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몽골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할 때마다 보였고, 이런 현상이 보일 때마다 나의 온 마음을 감싸는, 나만이 아는 언어의 감동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몽골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몽골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부천 몽골교회에서 **게를레**(빛이라는 뜻)란 몽골 새 이름과 함께, 나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과 가족이 되었기에, 주일 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늘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몽골 사람들에게 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인 것이 그들에겐 더 편안해서 일까요....?

늦은 밤, 이른 새벽 등 아무 때고 나를 찾아 주는 몽골 사람들이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사연도 내 상황에 맞춰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수 없기에, 항상 그들이 내민 손을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보통 사람인 것을.....

I. 나의 첫 사랑,

그리고 첫 아픔이었던 수렌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스무 살이 조금 넘은 그 동생은, 처음부터 가는 날까지 내겐 사랑 이었고, 아픔 이었습니다.

전혀 한국어와 문화를 몰라,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에 몽골교회를 남편과 함께 찾아온 동생입니다.

당시 함께 계셨던 서기원 목사님께서 내게 이

동생을 부탁하셨으나, 나 또한 그곳에 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기에 우리는 소통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 봤다는 수렌은 교회를 통해 한국 땅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에, 교회의 낯선 예배도 마음 열고 받아들이며 즐거워 했습니다.

주일이면 맛보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1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수렌의 삶은 온통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법이 수렌의 위협받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결국 그 법이 동생을 몽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에 믿는다고 했으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신기하다며 웃었던 동생....

그런 동생이 믿음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힘들었나 봅니다.

그 동생을 마지막 만난 장소는 청주 외국인 여자 교도소.....

교도소와 출입국관리소의 계속적인 전화를 받고 내려가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문득, 내가 몽골사람을 위해 마음에 통증을 느끼며 울고 있는 내 모습이 깨달아 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서 동생을 만났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어 서로 그냥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언어로 소통할 수 없을 때, 우리
둘 만의 언어였던 꼭 안아 주는 것도 거기서
는 막힌 창으로 인해 안아줄 수 도 없었습니
다.

어느새 배운 한국어로" 언니! 미안해, 고마워.."
를 계속 반복하며 울기만 합니다.

일 주일 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동생
수렌에게 꼭 주고 싶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
다.

몽골성경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가 없어서 몽
골 큐티책과, "수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꼭 몽골에 가면 교회를 가야 해 알겠지? 널
기다리고 계셔..."라는 말을 사전과 책을 찾아
문장을 외워갔습니다.

크게 고개를 끄덕이던 동생을 지금도 기도하
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첫 사랑 그리고 첫 아픔...수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을까요?)

II. 얼마 전 몽골로 돌아간

26살의 간토야와 그의 딸 철멕.

"이들은 내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기쁨이었습
니다."

뇌성마비 딸, 철멕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고, 돈이 없어 생활고로 굶는 날
이 많은 때였습니다.

아픈 딸의 치료도 중단되고, 한국에 소망을 갖
고 함께 왔던 남편도 두 사람을 버리고, 남이
되어 홀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간토야가 많이 힘들어 소망의 줄을 놓으려고
할 때, 교회 기도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몽골 교회 어요나 목사님과 셀리더 언니들이
푸드 뱅킹에서 후원 받는 빵으로 두 사람을
도우며, 간토야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항상 안
고 다녔습니다.

앉지를 못해 항상 누워있거나, 엄마가 안고 다
녀야 했고, 말하지도 못하며, 음식도 씹지 못해
엄마가 다 씹어주면 겨우 삼키는 아이....
그러나 얼굴이 너무 예쁘고, 항상 웃는 얼굴
의....5살짜리 여자아이 철멕!!

간토야 역시 한국어를 몰라 항상 함께 다녔습
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그 동생과 함께 참 많은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
니고 또 다녔습니다.

우리는 같이 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만난 어려
움을 서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토야, 내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의 너와 철
멕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너의 입으로 말하고 기
도한 대로 이루어 지는, 많은 놀라운 일들
을 너도 보았지?

이건 너와 딸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은혜를 나눌 때마다, 간토야는 더 든든
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
은 자기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갔습니다.

저는 이 일에 나의 몽골 교회 가족들의 도움
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정리 해야 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나눌 때는, 간토야가 충분히 자신의 언어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를 크게 도와주었던 우리몽골 교회의 좋은 신앙의 권위자(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침게 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몽골로 가기 이틀 전 간토야가 깊은 고백을 합니다.

"언니,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 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 한국을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한국 사람들은 내게 너무 잘해줬어요. 내가 만나 한국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딸 철맥으로 인해 내가 이 모든 사랑과 도움을 받았기에, 난 이 딸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몽골로 가면,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철맥은 내게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다녀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두 단어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와!, 하이르테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인데,

엄마의 기도를 항상 들으면서, 배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엄마가 기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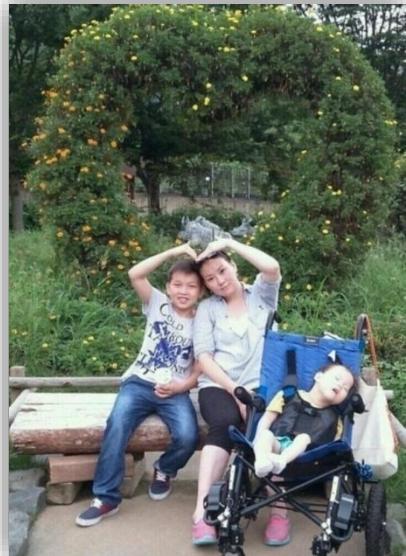
때마다 부르던 하나님이고, '사랑합니다'는, 그 아버지를 향한 엄마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출국 전 날, 마지막 철맥을 내 품에 꼭 안고, "철맥 사랑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예쁜 얼굴로 그리고 제법 정확한 표현으로

"하이르테~ 하이르테~ 하이르테~"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마치, 언젠가 들어보았던 하늘의 언어(방언 친양)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노래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박 웃고 있는 엄마 간토야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철맥도 고마워서 인사한다며.....

나의 동생 간토야는, 그가 기도한 대로 딸아이

의 아주 좋은 훨체어도, 생활비의 큰 액수도, 또 병원진료까지도, 모두 무료로 혜택을 받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몽골에서 오랜 시간 훌로 기다리던 아들(13살)이, 엄마와 동생이 보고 싶어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엄마 간토야는 2시간을 울며, 제게 마음을 토하더니 결국, 엄마의 간절한 금식 기도 끝에 그 아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한 달을 함께 지내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난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III. 인천적십자 병원에 간이 많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어요나 언니,

내 친구를 전도해 달라는 교회 언니의 부탁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자리를 떠나기 전, 언니에게 기도해주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허락해주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언니는 손만 내게 맡겼을 뿐,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알기에, 천천히 또 박또박 기도했습니다.

언니가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믿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언니는, 모르는 한국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찾아와 준 것에 너무 고마워 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몸이 좋아지면 언니를 교회로 초대하고 싶다 했더니, 너무도 쉽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뒤 언니는 퇴원하자마자 그 주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 언니를 위해 목사님과 우리교회 식구들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1시간도 넘는 거리를 언니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힘들 텐데도, 그 뜨거운 여름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랑하는 언니에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 침게 언니가 자신의 신약성경책을 주고 왔습니다. 언니의 평안한 마음을 보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믿음 위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품에 안고 왔던 잊어버린 양처럼, 언니 안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평

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다른....이라고 구별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되어 한국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며 구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되었고, 결혼을 통해 우리의 자녀로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다른 문화권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과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을, 우리가 안아주지 못하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있던 다른 종교가 이 땅에 함께 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가족이 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몽골의 토속적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온 몽골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족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의 문화가 우리를 다스릴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 사람들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어려울 때 내민 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주었더니, 어느새 그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몽골로 돌아가서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가족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말씀)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분과 소통할 수 있게 했듯이, 내게 주신 몽골언어의 감동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몽골사람들을 알게 했고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나의 몽골사람들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지 대한민국!

외국인

차세대

통일

선교지 대한민국 !

김영제 목사

선교 중앙교회

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현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교 교장



들어 가는 말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10여 년 전에 이슬람권이며 공산권인 선교지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 처음에는 선교지에 두고 온 가족과 교회가 그리워서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내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다. 선교지 보다 우리나라와 북한 동포를 향한 눈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선교지 교회는 갖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었다. 국가법으로 전도는 불법이라 규정되어 전도하다 걸리거나 신고를 당하면 감옥에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새 신자가 전도되어 나왔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인

데도 감사도 없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을 보았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교회마다 전도를 부르짖지만 전도하는 성도도 드물고 전도되어 나오는 새 신자도 극히 드물었다. 선교지 교회는 핍박가운데서도 살아있는데, 한국교회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 교회 때문에 울게 되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 받은 에베소교회, '이단을 용납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고 책망 받은 베가모교회, '살았다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은 사데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책망을 받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교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책망 받은 여러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보이고 있었다(계2,3장).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약13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보내 주셨다.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기적 같은 복을 주셨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8대 무역국이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제 2의 선교대국이 되었다. 한민족 오천 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외치던 호세아의 경고가 우리나라에 주시는 경고처럼 들렸다(호4:7). 하나님의 실망과 경고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외치는 강단이나 회개하는 성도들을 보기 어려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한국교회의 위기와 선교의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게 하셨다. 선교사를 파송한 모교회격인 예루살렘교회나 앤디 옥교회가 살아있어야 계속하여 선교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망하고 세계 선교도 위기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가려고 하던 나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 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금 선교중앙교회를 담임하며 선교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다. 외

국인 신학교를 운영하며 외국인을 전도하고 훈련하여 그들의 나라로 재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 한국인 예배만 아니라 러시아어, 키르키즈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필자는 오늘도 선교지에서 한국이라는 선교지로 다시 파송 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에 UC선교회에서 ‘선교지 한국’이라는 주제로 책자를 내고 집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어느 때보다 한국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는 많은 교단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호칭하고 후원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선교지 한국’에 대해 UC선교회의 요청대로 첫째, 우리의 아픔 북한 선교, 둘째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선교, 셋째로 한국교회 회복과 다음세대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사실은 세 분야 모두를 각각 따로 다루어야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내용을 나눌 수 있겠다 싶지만 이번호에서는 요청자의 권유에 따라 이 세 파트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 우리의 십자가 북한 선교

90년대 선교지에 있을 때 매달 한국에서 보

내 온 '월간 조선'은 북한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았다. 북한 동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읽으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90년대에는 북한 동포들 중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때였기에 그들의 참상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품으로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나왔다가 도망 나온 탈북자 한 사람이 숨어 들어왔다. 그 날 이후로 북한 문제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3년 동안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결국 발각되어 그는 북으로 압송되고 나도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 목회를 하면서도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한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나의 애끓는 마음을 가끔 교회 주보에 칼럼란에 실으면서 교우들과 북한 선교를 위해 사랑과 기도를 모으고 있다. 아래 글은 2003년 한국 목회 첫해에 실은 내용이다.

<몇 년 전 선교지에 있을 때의 일이다. 위기에 빠진 한 북한 탈북자가 살려달라며 보호를 요청해왔다. 거처를 몇 번씩 옮기며 그를 숨겨주었다.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대사관 측은 그런 사람이 많다며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나보고 보호하고 있으라고 했다. 처음엔 불안하여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피우던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안정을 찾고 담배도 끊고 나중엔 신학 공부 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불잡혀 가고 결국은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한국 정부를 믿고 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나는 가슴을 치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다. 대사관 직원은 일이 터진 다음에

야 뒷북을 치며 '그런 탈북자는 수없이 많다'고 했다. 그들의 말속엔 조그마한 연민의 감정도 숨어있지 않았다. '당신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일지 몰라도 나에겐 단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쏘아 부쳤다. 그를 보호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일한다고, 위험한 일한다고 그를 보내라는 말들이 많았다. 어쩌면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것이 이 일과 관계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가 한 일에 후회가 없다. 그는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양이었다. 목자의 양심으로 나 살겠다고 어찌 죽음의 위험에 있는 양을 쫓아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도 그린한 한국으로 보내주지 못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늘 나의 마음에 남아있다. 그가 살아있기를 늘 기도한다. 그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 할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와 지내면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은 그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 친구는 왜 북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남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답 외에는 찾을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값을, 먼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값을, 평화의 나라 축복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값을 해야 한다'고 울며 다짐했다.

작년 4월의 일이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 투먼(도문)에서 북한 공안원들이 탈북자 100명 가량의 코를 철사로 훈 다음 트럭에 실어 북한으로 압송해갔다'는 내용이었다. 기가 막혔다.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노예나 짐승에게도 하지 못 할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 고난당한 이웃들은 누구인가. 바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랑스런 대한민국, 바로 그들과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닌가. 나는 이런 기사를 본 한국 정부나 비정부 인권 단체,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 나의 기대는 산산 조각이 났다.

이 사건을 거론하는 정부도, 인권 단체도, 그렇게도 데모를 하는 잘하는 사람들도, 통곡하며 우는 교회들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때처럼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축구공 하나를 놓고 미칠 듯 연호하고 열광하면서 '대~한민국'을 온 세상 떠나갈 듯이 외치며 훌리던 이 백성의 눈물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한국 기독교의 양심은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왜 수백만의 생명이 우리 옆에서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굶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본척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나라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무어라 하실까. 그 피 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까 두렵다(겔3:20).

사랑하는 선교중앙 가족들이여,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 홀로 외롭게 울게 하지 말자. 주님과 같이 울자. 고난 받는 동족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롬12:15). 내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2003.06.01)>

이 지면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필자는

북한 선교를 하는 중에 속은 적도 있고 실망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같은 민족으로서,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

현재 북한 선교는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

1)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남한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에 갈 수 있는 미주 지역의 동포들이나 중국 러시아 동포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국제기아대책 등의 NGO 단체가 북한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삼엄한 감시를 받기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월치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접근해 가야 한다.

2) 탈북자 선교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몽골, 동남아 지역들에 흩어져 고난 당하는 탈북자들이 많다. 그들이 겪는 비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경 부근과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떡과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 탈북자들을 통하여 북한으로 성경과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많다.

3) 한국에 들어 온 새터민 선교

탈북자 중 한국에 들어 온 사람들을 새터민이라고 한다. 그들은 얼굴은 같지만 사상과 언어와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된다.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뿌리

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들의 사고는 단순하고 순수하기에 그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가장 좋은 북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

4)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

북한 땅에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하는 지하교회가 상당히 많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을 쉬지 않아야 한다. 통일의 날에 그들은 순교적인 세계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5)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굶주림과 인권은 세계 최악이다. 북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아프리카 아이들 보다 더 못하다. 같은 동족인데도 남한 사람보다 평균 10 센티 이상이 작다. 어린이들과 노약자 중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무관심 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도와야 한다.

북한 선교는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동포들은 지상에서 가장 악한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이웃이다(눅10:30~37). 그들을 못 본체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될 것이요, 주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양심있는 그리스

도인이라면 헐벗고 굶주리고 갇힌 북한 동포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마25:40).

그리스도인은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야 한다(에4:8). '죽으면 죽으리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에4:16).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 당함을 차마 보리이까"하고 부르짖어야 한다(에8:6).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에7:3,4).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 놓겠다는 바울의 헌신과 모세의 눈물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전 9:3 ; 출32:32).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롬12:15). 통일의 날에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죽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서는 날, "영과 육의 굶주림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네 동포들을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12년 1월1일 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만 명을 넘어섰다. 주민등록상 이는 국내 인구의 약 3%(2.8%)에 해당하는 숫자다. 해마다 외국인이 11% 이상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은 2007년 약 20만 명에서 2012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전체 서울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일반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둘은 또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1. 일반적 측면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산업 현장에서 귀중한 노동을 제공해 경제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있다. 또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는 우리 사회를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들이 밀집한 거주지역의 슬럼화 가능성 등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의 살인 범죄율이 한국인의 6배에 이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가 나라의 미래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일민족의식과 배타성이 강하여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력착취와 비인격적인 대우,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비방하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의 세계화 운동에 기여하는 애국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영적 측면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전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서도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라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시·군·구 단위의 자치단체 가운데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42개에 이르렀다. 경기도 안산시(6만여명), 서울시 영등포구(5만여명), 서울시 구로구(4만여명) 등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어 한국 안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 한국이 곧 선교지가 된 것이다.

1) 긍정적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몰려오게 하셨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거기에 K-POP의 열풍까지 더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고,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효과가 있다. 한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고 교회를 찾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2) 부정적 측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3만 8678명이다.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19%에서 지난해 0.55%로 높아졌고, 2014년에는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멀리 바라보면 한국인은 자녀를 적게 낳고 외국인은 많이 낳기 때문에 외국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의 유럽이 겪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이슬람권 민족들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이슬람 신앙을 철저히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슬람은 1988년 올림픽 때 이미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의 이슬람화는 아시아의 이슬람화'라는 인식으로 한국 선교에 적극적이다. 1988년 아랍의 모 일간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면, 한국인의 종교성은 타의 추종을 불

허한다. 한국에는 현재 중동기술자로 왔다가 개종한 7천명의 무슬림을 포함해서 3만 여명의 신실한 한국인 무슬림이 있다. 한국의 종교 성향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한국에서는 이슬람세력이 기독교보다 많을 것이다. 오늘날 이 세대에서 가장 적합한 이슬람 선교지는 한국이다."

세계적인 이슬람 전문가 윌리엄 와그너 (William Wagner) 박사는 "20세기 후반 들어 이슬람은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이슬람은 유럽의 전진기지로 영국을 목표로 삼았으며 아시아의 전진기지로는 한국을 지정해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경각심을 요청했다.

이슬람 세력의 세계정복 전략 중 아시아지역 이슬람화의 전초기지로 지명된 한국은,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그들의 목표대로 정치·경제·문화·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매우 활동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대학 수능시험에 아랍어가 제2외국어가 되었다. 아랍어를 선택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 수많은 학생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원과 대학들이 곳곳에 설립되고 있고, 오일달러를 무기로 많은 한국학생들을 중동아랍권으로 유학 보내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선교의 선봉에 서있다. 세계 석유 자원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에서 얻은 부를 전략적으로 이슬람 신앙 전파에 쓰고 있다. 이제 서울

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다.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선교사이다.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22.8%인 16억이 이슬람 인구로서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이다. 2011년 말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 인구가 20만 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7만 천여 명은 한국인 이슬람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에 외국인 인구가 3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산된다. 통계에 비추어볼 때 350만 명의 22.8%인 약 80만 명이 무슬림이며 한국인 개종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을 더하면 곧 한국도 무슬림 1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 영국의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 전 영국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지방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영국이 방심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포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이슬람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이슬람 선교기지로 삼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귀화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무슬림과 결혼하여 무슬림이 되기도 한다. 기독인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데 비하여 무슬림은 평균 6명 이상을 낳는다. 그러니 한 세대만 지나면 세배 이상씩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무슬림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가만하면 유럽처럼 한국도 이슬람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80%가 교회에서 자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오늘 날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하여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3) 외국인 선교의 중요성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전도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쉽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자기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일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다. 그들에게는 선교사가 겪어야 할 언어습득의 고통, 문화적 충격, 그리고 비자문제,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등의 어려움이 적다. 선교비도 훨씬 적게 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선교적 상황을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눈뜨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들이 훈련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세계선교 운동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순교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며, 때로는 선교사가 평생 수고하고도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이슬람권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선교사로 재 파송하는 일은 최고의 선교전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들은 오히려 한국에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경우에는 유럽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한국은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 영적전쟁의 시기인줄 알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이방 종교에 먹히고 말 것이다.

III.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문제

1. 한국교회 진단

1) 쇠퇴하는 한국 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눈에 띠게 하강하고 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가 일 년에 3천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개척교회는 10개가 개척되면 살아남는 것은 한두 개라고 한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는 600만 명 정도이고 2030년이 되면 200~300만 정도로 급히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2) 다음 세대 문제

특히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 문제는 심각하다.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그룹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은 어린이들의 마음도 길가 밭이 되어 전도가 어렵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숫자가 10년 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 고등부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무게에 눌려 교회와 예배를 뒤로하고 있으며 나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안에서의 선교단체들의 활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다.

3) 한국 교회의 총체적 위기들

(1) 한국교회는 첫 사랑의 열정과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2) 한국 교회의 위상이 무너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

(3) 이단들과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단들은 양떼를 빼앗아 갈 뿐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를 서로 의심하며 불신하는 삭막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4) 전도는 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숫자는 많다.

많은 교인들이 불교와 천주교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참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증빙이기도 하다.

(5) 선교 열정과 재정적인 힘이 줄어들어 선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깃 2030 운동을 펼쳐가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선교 후원을

중단하므로 새로운 선교사는 나가는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장기 선교사가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6)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다.

교회에서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희귀해져 가고 기복주의와 심리학과 귀를 간지럽게 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2.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전략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는 없을까? 필자의 생각은 이미 기울고 있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큰 고난과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1) 회개 운동과 성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자각하고 깨어 회개하며 각성하는 운동이 교회마다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세속화와 인본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닮은 성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라도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목회 패턴이 바뀌어 져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참된 복음과 개혁 신앙을 회복

해야 한다.

3) 대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를 목적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

대교회 병에 걸려있는 교회가 많다. 대교회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목적하는 교회가 많아 져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4)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 전도가 어렵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시기라지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의미요 가장 우선된 사명이다.

5) 출산과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한다.

기독교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도 이슬람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50여 년 간 기독교가 47%의 성장을 보였고, 불교가 63%, 힌두교가 117%의 성장을 보인데 반해, 이슬람은 500%의 성장을 해왔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를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을 이슬람교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윌리엄 와그너 박사도 최근 "UN 통계도 2050년에는 전 세계 청년의 절반이 무슬림이 될 것으로 발표한 이상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교의 폭발적 부흥의 첫 번 째 원인은 다산이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신봉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구약적 선교 방법에 충실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무슬림들은 평균 6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 갈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은 정치, 종교, 경제,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모든 것을 종교가 지배한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신앙 환경에서 자라고 훈련받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적게 낳을 뿐 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바로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의 자녀교육 원리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임(신6:4~9)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6명 이상 낳고 그 자녀를 제자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30년 후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3배로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화하는 일까지 한다면 한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가는 말

한국 교회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음을 속히 자각해야 한다. 깨어 대비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 2만 5천명 이상을 파송한 세계 제 2의 선교대국이 선교대상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특히 북한 선교는 한국교회가 지고가야 할 거룩한 십자가이다. 이 일을 외면하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셔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복된 선교 환경을 주셨다. 한국 교회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을 훈련하여 재 파송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계속하여 부흥 성장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들은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은 망하는가? 복음은 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제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빙빙 돌며 옮겨가야 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8절, 즉 세계 복음화의 방법인가? 결코 아니다.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길 원하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온 세계 땅 끝까지 퍼져 나가고 확장되길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 복음화 운동은 복음의 이동이 아니라 확장이다.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계속하여 대를 이어 전수되어져야 한다. 그 기본을 지키면서 복음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확장시켜 가야 한다. 사도행전 1:8의 의미는 복음의 이동이 아니라 확장이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옳거 버렸다. 다른 가정은 구원하면서 자기 가정은 망하고, 다른 나라는 구원하면서 자기 나라는 망하는 해괴망측한 짓을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비성경적이요, 잘못된 선교 패턴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선교 운동은 무엇이며, 바른 선교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 선교대국이라고 자랑하며 떠드는 동안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한국 교화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왜 기독교는 열심히 선교해도 이슬람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구약성경의 선교 명령은 다산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창1:28). 일차적으로 많이 낳는 것이다. 그리고 낳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신6:4~9;창18:19). 이것이 구약적 하나님 나라 운동 방법이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그들은 지금도 이 구약적 선교방법으로 숫자를 불려가고 있다.

기독교도 많이 낳으면서 선교하던 시대에는 부흥의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낳지 않으면 선교하는 근대에 와서는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많아졌다. 기독교인들의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방심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문제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처럼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서는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이슬람의 부흥을 따라갈 수 없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이웃)을 제자 삼는 것이다(마28:19~20).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고, 낳은 자녀를 제자 삼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은 멸망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자기 가정과 나라에 들어 온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지 않는 선교는 비성경적 선교요, 절름발이 선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 교회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과욕을 부리거나 편법을 쓰면 안 된다. 기독교 선교가 너무 서두르면서 편법을 쓸 때가 많다. 다시 말씀을 불들고 구약과 신약의 선교원리를 다시 정립하고 멀리보고 우직하게 달려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의식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찍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계속하여 부흥 성장하면서 선교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선교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선교할 수 있다. 결코 영국처럼 선교하던 국가가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원리와 세계 선교의 원리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에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신
구약성경에 있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자.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자!

주님 오실 때 까지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하자.

선교지 대한민국!



선교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황필남 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오늘날 미국은 약 3억 가까이 다민족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 48%가 자신을 기독교 인이라고 부른다. 타종교인들,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 52%인 셈이다. 미국 내에는 200 여 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는 히스패닉이 17%에 해당한다. 백인들 외에도 흑인들 숫자가 13%다. 와싱톤 D.C 근교의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안에만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 작은 지역안에 100개 이상의 종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와싱톤 D.C 자체가 선교지임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런 선교의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다. 눈앞에 왔다갔다하는 물고기들을 잡을 생각이 없는 미국인들이 태반이

다. 미국인들은 100,000명의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여 선교하며 선교사 파송 1위국이다. 원양어선은 멀리 보내 사역하지만, 근해에 있는 물고기들은 너무 많이 방치되어 그들이(외국에서 온 이민자) 각종 우상들과 무신론과 다른 풍습을 가지고 와서 점차 기독교 국가 인구의 %를 잠식하고 있어 미국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안에 내가 들어와 보니 가는 곳마다 선교지이고, 미전도된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이 북미(미국과 카나다)의 현실이다. 독일과 스웨덴도 같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미국, 카나다, 스웨덴, 영국, 필란드, 독일, 한국이 모두 선교지가 되어

버렸다. 왜 그런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됨에 따라 행복과 교육과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이며 강력한 어둠의 진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실상은 복음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수두룩하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분명히 선교지인 셈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국내에 외국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성령의 강한 열정이 식어 있고 화석처럼 굳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아주 극소수가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한다.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내에 머물면서도 열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우리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의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2위국(선교사 25,000명)인 한국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모슬램, 물ennon, 이단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아이러니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민자들 200만 시대가 되어 버린 한국이 이제는 선교지(Mission Field)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제 점점 외국인인 늘어나는 대한민

국을 생각해야 하고, 점점 더 많이 외국에 나가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하에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 본인은 본고에서 선교지에 대한 자각 부문과 한국이 선교지인 이유들을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한국 선교에 대한 **6가지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자체가 선교지란 “자각이 필요한 시대”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수모를 당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오늘날 인구 18%의 기독교 인구 성장률은 1970년대 80년대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의 덕분이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새벽기도와 전도와 희생 덕분에 이렇게 오늘날 60,000교회와 25,000명의 선교사들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깊은 영적인 잠과 무지와 무감각과 창조적인 생각이 없는 잠자리에서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다.

1) 자각하지 못하고 잠자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깨어나야 한다.

미래의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기 위

해서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죽어가고 있다. 한 선교단체 간사는 말하기,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3% 가 다니고 있다는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체 어린이 인구의 3%라면, 30-40년 후에 한국 기독교가 3~4%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통곡할 일이다!!!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교육비 걱정 등 불신앙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들 조차도 아이들을 낳지 않아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한 가정당 1.2인이 태어난다. 그것도 태어나는 아이들 10명중 2명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혼혈 아들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후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20%는 다문화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교사들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도전을 하는 자들이 너무 없다.

교회들마다 당회가 있건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문화 아이들 전도에 무관심, 무능, 무관한 의식으로 당회에 참석하고 있다. 주일학교 전문 선교단체들과 교사들조차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대책과 방법들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제 막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열정을 가진 분들에 의해 선교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중 대형 교회에서 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중 투자해야 하고, 마음을 열고 교회 문을 이들을 위해 확 열어 젖

혀야 할 때다. 또한 작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각자들도 외국인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는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사랑을 가지되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민족에 선교를 갖다 온 경험있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공조하여 협력 선교를 하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2) 외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전도자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리점에 갔었다. 영접부서 사무원, 딜러 팀장, 재정 담당관, 딜러를 거의 90% 이상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며 미국인들이었다. 한국인들은 고작 10%도 안되었다. 왜 한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미국인들과 중동인들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가?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타고 몽골이나 미국에 가다 보면 요즘에는 스튜어디스들이 몽골인, 미국인, 태국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로 배치 되었다.

고객을 얻기 위해 현대 자동차나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이렇게 고객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사역자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이나 베트남인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베트남 사역자나 베트남에 장기 선교를 한 선교사들이나 그들에 대해 아는 그런 영적 인력을 대치하지 않고서는 선교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신은 유대인인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 디모데를 이방인 선교사로, 그리고 그레데섬 선교를 위해서는 이방인 출신의 디도를 선교사로 세워 사역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선교사가 선교 전략으로 써 먹은 것인데, 한국이 외국인 선교를 한다면서 아직도 실전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2.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옳다는 선명한 이유들

1) 한국 교회가 늙어 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성장이 멈추었거나 정체되어 있다.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교회와 성도들 숫자가 줄고 있다. 이것은 약 30년 후면 한국 교회가 약화 될 것을 보여 준다. 교회 내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을 보면 교회는 서서히 늙어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

그 대신 공장의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와서 메워주고 있다. 미국에도 3D 부분은 거의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는 남미인들과 흑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 메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고급 인력이 아니면 모두 외국인들이 일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아이들을 낳지 않고 출산율은 줄어 청년인구가 모자라고, 음식과 의약의 발전은 고령화 시대를 가져왔다. 젊은이들은 모자라 군대도 부족하고 산업현장에도 부족하여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가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국은 그동안 단일 민족을 부르짖어 왔지만 지구촌 세계화의 추세의 의해서 자연히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족분을 외국인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자리를 메워야 하는 시대가 전개된다.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예배당을 한국인들이나 히스패닉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세를 받아 겨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10~20명이 주일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나 발 빠른 교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 전통적인 예배당을 팔아 버리고, 학교 체육관을 빌려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사람들을 신나게 찾아 전도하며 일어서고 있었다. 묵은 전통을 깨어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갈망하는 교회는 산다.

2)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몇 년 전 한국에 갔다가 2,500명 정도 출석하는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해 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 교단 중 어느 교단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에 이른다고 했다. 믿기지 않은 말이었다. 나는 정색을 하면서 다시 물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그렇다고 했다. 나는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동안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여 50개 이상의 교회와 수 천명의 그리스도인들 얻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대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의 선교의 열매들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고, 앞으로 교회들이 비어갈 것을 생각하니 충격이 아

닐 수 없다.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소식은 비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전자기구 놀이와 아이폰에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다. 시대가 변했으므로 새로운

아이들 전도 전략과 기도가 필요하다.

몽골, 중국, 러시아의 변두리와 같은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쵸코파이, 사탕, 풍선에 아이들은 구름 떼처럼 물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문화와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것과 놀이기구가 다양하므로 아이들이 그것으로 교회에 몰려오지 않는다. 부모에 의한 자녀들 제자 교육과 신세대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과 전도가 절실하다. 당장의 유익이 되는 어른 전도도 필요하지만 어린이 전도에 투자하고 생명

을 거는 일이 미래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일이다. 아이들 영혼을 죽이는 일은 미래 한국 교회의 꿈나무들의 씨를 말리는 바로 왕과 같은 짓이다.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현대 문화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산파같은 자들이 되자. 우리들도 산파들처럼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출 1장).

3) 한국에 거주할 비전을 가진 외국인들이 몰려왔다.

(1) 그들은 왜 한국으로 몰려 왔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풀이 없으면 목동들과 가축이 안 가듯이, 지금은 한국에 먹을 것과 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다. 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가깝고 이질감이 덜한 한국을 선택해서 스스로 밀려 왔다.

둘째, 한국의 영적인 힘 때문에 한국에 왔다. 한국인 선교사들과 대사관이 12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그들을 한국에 오게 만들었다. 선교사들은 타민족과 한국의 중간 역할을 한다. 몽골에서 100명 안팎이 모이는 한인선교사는 말하길, 자기 교회 몽골인들 가운데 40명이 넘게 한국에 가서 일하

고 공부한다고 했다. 선교사로 인한 동경, 한국 어와 문화를 접한 것이 기회가 되었다. 거기에다 한국 선교사를 영적 은혜를 받은 것이 한국을 가게 만들었다. 러시아, 티벳, 필리핀, 중국, 인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페루 등 수많은 나라들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을 오게 만들었다.

셋째, 한국인들의 정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정이 있다. 그런 정 문화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많이 끌고 온다. 개중에는 외국인들을 일시키고도 봉급을 안주거나 아예 못되게 상대함으로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 놓은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그래도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과 정으로 상대한다.

넷째, 한국 문화와 한국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 사람들을 한국으로 흘려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들 가운데 하나는 한류이다. 한국 영화, 한국 기업의 제품들, 한국 청소년들의 노래와 춤, 한국의 음식, 스포츠의 운동 선수들이 세계에 한국을 알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하는데 일조했다.

다섯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데 대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70년, 80년대만 해도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로 빠져 나가던 한국인들과는 반대로 이제는 외국에서 여러 이방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크리스챤들이 한

국에 머물면서도 대한민국에 밀려온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낚아 올리라고 물고기 떼들(외국인들)을 보내 주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왜 먼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문하실 때, “제가 외국에 나가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당신은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이 비록 외국에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외국의 물고기들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곁에다 몰아왔기 때문이다.

3. 선교지가 된 대한민국을 선교 국가로 살리는 6가지 전략들

죽어가던 기독교 국가에 죽음과 쇠퇴가 멈추고 새롭게 박동하며 성장하기 시작한 스웨덴의 한 교회와 선교를 실례로 들면서 연구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한국인 전도와 이방인 선교의 융합 선교

2012년 1월 유럽 단기 선교여행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찾아간 새생명 교회(New Life Church)가 기억난다. 이 교회는 개척된지 10년 된 교회다. 죽어가던 스웨덴 기독교에 혜성처럼 나타난 모델교회였다. 이 교회는 51개 종족이 주일마다 찾아 온다. 주일에는 2부 예배로 800명쯤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는 스웨덴 언어와 영어로 동시통역하고 있고, 다른 소수 종족들은 통역자가 있으면 자기 언어로 통역된다. 이 교회의 주류는 스웨덴인들이지만 외

국인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장 많은 외국인은 러시아인들과 몽골인들로 각각 30~70명씩 출석한다. 국내인 전도와 외국인 선교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융합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초대 교회 설교를 14개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회개했듯이 말이다. 스웨덴 내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모이므로 흥미롭고 즐겁게 전도 선교하고 외국인들은 그 자국민들과 함께 끼어 예배 드리므로 즐겁다. 한국 교회가 이런 융합 선교와 융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애를 나눈다면 지구촌 예배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

2) 구제와 사랑을 통한 선교

이 스웨덴 신생교회는 예배 때마다 먼저 스웨덴 자국민들 약 30명이 자원하여 구제 현금을 약 30\$씩 드린다. 그들은 돈으로 드리지 않고 물려오는 이방 이민자들을 위해 30\$(3만원) 정도의 식량을 구호품으로 한 바구니씩 사 와서 교회에 헌물한다. 그러면 목사는 예배 중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중에서 삶이 어려운 이민자들이나 종족민들에게 구제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누어 준다.

이런 구제와 사랑의 실천은 이웃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 헌물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직업을 얻고 봉급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빚을 갚기 위해 스웨덴 교회에 자원하여 30\$상당의 구호품을 드린다. 그래서 자신이 드린 구호품을 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받아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여 더 희생한다. 그 다음에 드려진 구호품은 러시아인에게 전달되고, 나중에는 몽골인들과 태국에서 온 새신자가 받아간다. 희생과 사랑의 선물은 꼬리를 물고 연쇄반응을 하며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소문에 소문을 물고 새신자들을 물고 오고 있다.

신기한 하나님의 선교방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민자들은 매주 교회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 교회를 설립한 17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노르웨이인의 머리에서 창안된 선교방법이다.

3) 소수 민족 지도자들의 영적 훈련과 제자 훈련을 통한 선교

이 교회 목사들은 계속해서 소수 민족 지도자들을 불러 교제하며 성경과 제자훈련을 시켜 나갔다. 우리가 참석한 2012년 1월, 평일인데도 소수 민족 지도자들 훈련 모임과 연합 구역모임이 있었다. 소수 지도자들 모임은 구역장들 훈련 모임이었다. 소그룹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훈련을 매주 정규적으로 하고 있었다. 구역장 외에도 가능성은 가진 평신도들을 불러 함께 교육시키고 있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국인들을 영적 훈련에 동참시켜야 한다.** 스웨덴 교회는 이것을 잘 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국인 교회 목회자들은 한국인 평신도 훈련에만 매달리지만, 스웨덴 교회 목사들은 하루 이틀은 자국인들 훈련을 시키지만 다른 날에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외국인 지도자 훈련에 통역자를 통해서 열중하고 있었다. 한국 목사님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4) 교회의 건물과 집기들도 공유하는 선교

스웨덴 교회는 교회 지하에 있는 여러 개의 룸을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배려했었다. 한 소수민족 사람들이 걸인이 되자 그들을 위해 임시 거주도 교회 지하실에 허용하였다. 그리고 사무실도 따로 떼어 주었다. 자기 스웨덴 본토백이들도 모자라는데 소수민족에게 사무실을 나누어 준 것은 참 형제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스웨덴 교회의 희생과 배려는 외국에서 온 소수 민족인들 가슴에 사랑의 불(형제애)을 질렀다.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교회는 한국교회나 스페인 계통, 흑인들에게 예배당을 임대하고 사무실도 준다. 그런데 한인 교회들은 정색을 하면서 소수민족 교회들에게 예배당을 빌려 주기를 거절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때로는 정색을 하기도하고, 내 쫓듯이 나가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나는 몽골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다. 한인 교회들이 선교를 하자고 현금을 하며 선교지로 보내고, 선교사들을 환영하며 설교와 간증을 시키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여 한국 사람들만 쓰도록 했다. 정작 내 곁에 와 있는 이방인(몽골인 교회)에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하고, 선교에 진정한 마음부터 가져야 한국 사람들이 참 선교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와싱톤 몽골 교회는 한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일에 스페인 교회가 1차 쓰고, 그 다음에 주인인 미국인들이 쓰고, 그리고 오후 2

시에 몽골인들이 쓴다. 오후 5시에는 다른 스페인 교회가 다시 정규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에는 제 3의 스페인 교회가 쓴다. 모두 5개 교회가 한 건물을 쓴다. 사무실과 교육관은 미국 교회가 2개를 쓰고 몽골 교회가 3개를 쓰고 스페인 교회가 1개를 쓰며, 교육관과 식당은 공동으로 쓴다.

아틀란타에 있는 한 미국인 백인 교회는 9개 민족들에게 교회당을 나누어 주어 각각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했다는 말을 들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인 목사와 어른들의 선교에 대한 아량이다. 한국 교회가 한국에 와 있는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열악한 외국인들에게 이런 아량과 사랑을 보이며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5) 외국인 선교에 경험있는 선교사와 적극적인 연합 선교

중국에서 살며 선교경험 가진 한국 선교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선교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선교다. 비록 선교사들이나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언어와 문화와 삶에 대한 체험은 값비싼 재산이다. 유대땅에 와서 30년간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배운 후 도성인신의 몸으로 선교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져서 내려온 예수를 통해 전개 되었듯이, 최선의 선교는 선교지에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면서 그 민족의 민족성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축이 될 때에 최고의 선교로 정착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현지 문화를 맛본 인재를 영입하여 선교의 주춧돌이 되게 하고 그를 중심으

로 선교를 진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본인은 와싱톤에서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데도 그리고 몽골인들 기독교 대학을 운영 사역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보면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델을 뼈속까지 체험하고 있다.

6) 교회 개척과 재생산적인 교회 개척으로의 선교

교회 성장 연구가 피터 와그너는 말하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좋은 전도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가르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했다(딤후 2:2). 그리고 그는 실제로 두란노 서원에 구원 받은 사람들을 모아 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이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제자 교회들이 이후에 전 세계에 세워졌다. 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바울의 두란노 서원 선교 사역을 본받아 몽골에 세 곳에 신학교를 세우는 일과 와싱톤에 신학교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피곤해 왔다.

10년 전에 콜로라도 덴버에 세워졌던 몽골 교회에 나오던 이름없는 한 청년은 지금 와싱톤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미래에 목사가 되겠다고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있다. 몽골에 세워졌던 우우르딩 게게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이미 43명의 목사들과 60명의 목회 전도사들을 배출했다. 와싱톤에서 믿었던 4명의 몽골인들은 몽골로 돌아가 10개 이상의 구역 모임을 만들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를 개척하는 자가 나왔고, 50개의 교회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가 나왔다. 베지니아 크리스챤 대학교에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50여명의 몽골인들에게 성경을 매주 가르치고 있다.

만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착되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복음의 씨앗은 정체되고 죽고 말 것이다. 한국에서 믿고 훈련 받은 자들이 자신의 고국과 한국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는 재생산의 비전을 경험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개척되어 져야만 한다. 그리고 지교회들이나 손자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며 재생산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선교가 진행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역사는 소멸되고 사장되어 지구상에는 가시덤불만 남게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땅을 기경하고 돌을 파내고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옥토로 만들어 새롭게 영혼들을 세워야 하는 영적인 부름을 받았다. 그것만이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이며 즐거움일 뿐이다. 와싱톤에 있는 제자 마인게렐은 매주 제자들을 보내 요즘 뉴욕에 몽골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6명에 첫 세례를 주었으며, 거리에서 3년 동안 잠을 자던 술꾼이 변화되었다고 전한다. 내가 일하는 와싱톤 몽골교회는 요즘 노스캐럴라이나로 자동차를 몰고 왕복 1,000Km를 달려가고 있다. 그곳에 어른 50명, 어린이 30명의 영혼이 교회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제자삼기 운동에 재생산 해야 하고, 교회 개척에 재생산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이 원하는 선교이며 지상명령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춤을 출 것 같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실 것 같다.

결론: 우리는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향해 선교의 화살을 날리는 궁도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화살대와 같고, 한국에 와 있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화살대의 뚜꺼운 낚시줄과 같다면, 우리가 선교하여 길러낸 외국인들은 화살과도 같다.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를 도왔던 교회들의 역할은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떠나 우리가 전도하고 길러왔던 그들이 화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녁(자기 민족)에 명중하려 쏜살처럼 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까지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한국 내 선교지를 선교하는데 하나가 되자!**

시편 127:4~5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 한국의 거리와 전철 안에 다니고 있는 외국에서 온 물고기들을 낚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해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2. 선교는 혼자하면 지친다. 팀 사역으로 해야 열매도 많고 덜 지친다. 우리가 한국내 외국인 선교에 혼자가 아닌 팀 사역(Team Ministry)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3.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선교에 마음이 열려져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제자화에 비전을 품도록 기도하자.
4. 교회들마다 외국인들에게 예배당과 교육관을 나누어 사용하도록 기도하자.
5. 목사들과 평신도 자도자들이 한국인 전도와 양육처럼 외국인들도 정규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도록 기도하자.
6. 한국인 아이들 출산과 다문화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한국 교회 되도록 기도하자.
7. 한국적 사고에 갖혀 있는 내 사고의 변화와 다양한 인종을 선교의 자원으로 보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 하자.

기도 제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지 대한민국!



국내 외국인사역

서기원 목사
디아스포라교회 담임목사
전 GMS 파송 몽골선교사
부천 다문화선교회 상임이사



1. 도입부

한국은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150 만 여명에 이르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다문화社会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거주 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 Korean dream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둘째 결혼이민자, 셋째 유학생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korean dream 을 가지고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korean dream 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을 찾아 온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3. 베드로의 변화

한국에 찾아 온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0 장 17-23 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독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의 내용은 보자기 환상인데 보자기 안에서 각종 짐승들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인하게 된다. 각종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며 멸시했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다. 때에 맞추어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20 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맞아들인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갔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며 유대인에게 가졌던 편견이 일차적으로 깨어졌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였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랬다’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는 변화는 이방인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에 안디옥교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열매로 나타났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고넬료를 사용하셨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사용하셨다.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4.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열방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있을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본국에서의 복음화율 보다 평균 7-8 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본국에 있을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심령이 되지 못하지만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둘째- 열방 사람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 돈이 삶의 목표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어 하나님나라가 삶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행복한 삶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본 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셋째-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교회로 찾아 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선교의 동원이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넷째- 남북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한국교회의 기도제목 중에 하나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부분들이 hardware 에 대한 부분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hardware 부분보다 software

부분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다섯째- 세계선교를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세계는 지금 디아스포라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원심적 선교만 아니라 구심적 선교도 가능한 시대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로잔 선교대회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조사하면서 신자가 늘어난 원인이 디아스포라들의 믿는 숫자가 늘어 난 것을 확인하고 디아스포라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세계의 신학교 안에 디아스포라 선교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세계선교의 흐름도 디아스포라 선교이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한국에 온 많은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5. 한국교회의 국내외국인선교에 대한 현황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첫째- 국내외국인선교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한국교회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개념이 해외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데 소극적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국내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가 많지 않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외국인선교를 하려고 해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둘째- 긍휼사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국내외국인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긍휼사역에 머물고 있다. 떡과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떡을 주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해야 한다.

셋째- 비 전문화되고 규모의 영세성, 국내외국인선교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국내외국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도 전문인사역자를 두는 것보다는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비전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단적인 지원의 부족.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국내외국인선교에 대해서 교단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교단들이 극히 적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국내외국인선교를 하면 효과적인 선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6. 국내외국인선교전략

첫째- 국내외국인선교에 대한 인식의 고취.

먼저 교회의 담임목사님들이 국내외국인선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일깨워야 한다.

둘째- 총체적 선교전략

국내외국인선교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떡과 복음, 긍휼사역과 제자훈련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긍휼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제자훈련으로 열매를 맺도록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셋째- 사역의 전문화 필요

국내외국인선교는 전문적인 사역으로 해야 한다. 먼저 언어권별 전문성이다.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 교회가 여러 언어권을 감당하는 것 보다는 교회가 맞는 언어권을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역의 영역도 전문화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외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외국인사역을 감당하도록 파송교회나 파송교단, 선교단체들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단적 지원의 필요

국내외국인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교회의 사역보다는 노회나 교단적 차원의 전략적 사역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면서 정부나 사회단체의 사역들이 종합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도 개교회들로서 사역을 하면 정부나 사회

단체들에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노회차원이나 교단적 차원의 사역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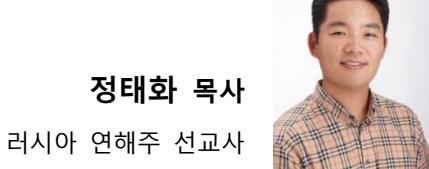
다섯째- 부흥의 새로운 돌파구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며 가정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신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불씨를 어디에서 타오르게 하실까? 시대마다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 세계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국내외국인들을 통한 교회 및 선교를 통해서 타오르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외국인선교의 방향을 부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을 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교회의 패러다임과 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시는데 국내외국인들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국내외국인선교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선교지 대한민국!



열방을 품은 교회를 꿈꾸며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라는 큰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 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이 시대의 선교적 패권을 한국교회가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특히 공산권 지역에서 한국선교사의 위력과 힘은 더 대단하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는 등, 대부분의 사역들이 한국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주의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산권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세계선교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한국을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세계 선교 단체들이 공산권이 열리기 20년 전부터 한국에 선교훈련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들을 준비 시키셨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으며 현재 선교한국의 위상과 자긍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모든 영광과 패권도 다음 선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선교의 열풍은 2000년도를 지나면서 많이 시들해 졌다.

1990년대에는 선교훈련센터마다 선교사 지망생들이 넘쳐 났는데 요즘은 선교사 후보생이 없어서 선교 훈련센터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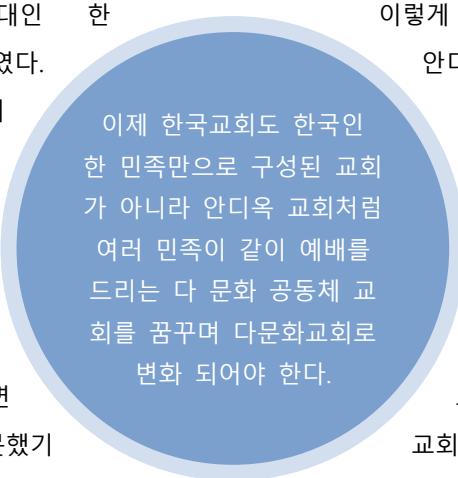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왔는데 앞으로 한국인 선교사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당연히 선교의 패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선교 한국을 이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1. 다문화 공동체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교회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이자 가장 큰 교회였지만 오래 쓰임 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선교를 지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내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는 등의 선교를 해 나갔지만 선교의 역사를 이끌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한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려 하니라” 하셨다. 이 말씀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교회 리더까지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문화 사람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습이었다. 이제 한국교회도 한국인 한 민족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 민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 공동체 교회를 꿈꾸며 다문화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일회적인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나 단일민족을 이룬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다.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도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인종을 차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지만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차별하고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들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보다 약한 후진국의 사람들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고 우리는 유대인을 욕하면서 정작 우리의 선교대상자인 후진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악한 나라와 불쌍한 민족들을 돋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선교지에서 맷혀진 열매를 우리의 열매라고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배척하여 선교할 마음조차 갖지 않고 있다. 아니 관심이 없다. 웬지 무서워서 피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출신 신분을 속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한다. 한국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어디 출신인가를 따져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 멸시와 천대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한 식구, 한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리더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국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가운데 유례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안에 있도록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교사 후보생을 한국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후보생들로 보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시작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3. 다른 민족의 사역자들을 키워 내야한다.

한국은 지금 제 3 지역에 대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의 선교의 모습은 대표 선수를 뽑고 그 대표선수에게만 선교의 사역을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성도는 직접적인 선교를 전혀 하지 않고 간접적인 선교만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를 했다. 앞으로 한국인 선교사가 줄어들거나 혹은 없어진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간접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성도 개개인이 지금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을 직접 선교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선교 지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선교대상지의 외국인이 너무나 많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이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20~30년 동안 사역을 해도 한 명의 현지 리더를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다. 현지 사역자 한명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선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 어렵고 귀한 일을 한국에서 한국 성도들이 직접 감당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힐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훈련된 한국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 직접 선교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30년 후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이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을 몇 명씩 키운다면 후에 그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선교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될 것인가?

첫째, 선교지의 현지 젊은이다.

이슬람권 사역은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직접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 한국 선교사가 가장 크게 일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공산권의 신앙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에 보내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선교 센터들을 공산권 지역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산권의 젊은 리더들을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교회가 아직도 세계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본국 미국에 초청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의 신학과 선교를 가르쳐서 선교사로 재 파송했다. 미국교회는 선교지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주어서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볼 때, 우리도 이제는 선교지의 젊은이를 영적으로 입양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 대학생이다.

한국에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온 세계 대학생들이 가득하다. 한국 안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돋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 안에 관심이 있고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한국 가정의 식사나 문화 습관 등을 한국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큰 장학회가 많다. 이러한 장학회는 그 도시에서 공부하는 유학생과 장학회 회원을 연결시켜 정기적으로 미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미국 사회를 알리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장학금을 주면서 한 달에 한번씩 식사를 대접한다면 외국에서 고생하는 유학생 중에 싫어할 학생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유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이들을 확보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이들이 한국 아니면 본국에서 자기 나라 선교를 돋는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한국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땅이다. 공교롭게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많은 인력들이 공산권과 이슬람권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에 준비하신 인력들이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모임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외국 근로자를 도울 일들을 찾는다면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 외국인 예배 모임을 만들어 주는 일이 전 한국교회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러시아 선교사인 본인은 한국에 휴가를 갈 때마다 한국 안에 있는 러시아 교회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관계를 쌓아 두려고

노력한다.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갔다가 교회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교회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역가운데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몇몇 교회에서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 외국인 예배 모임을 만들어 주는 일이 전 한국교회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키운 공산권의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의 이슬람권 선교사로 파송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우리가 전도한 유학생들이 이슬람선교를 돋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슬람권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
민족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다음 선교를
책임지는 이러한 일들을 꿈꾸어 본다.

선교지 대한민국!



우즈벡 근로자

외국인 사역 사례를 통한 견해

김아굴라 선교사/A국

현재 우리나라에 약 6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그들 중에 약 60%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있으며, 대부분 3D산업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회교권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영혼을 살리는 일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드림(Korea Dream) 봄이 일어나서 20대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30~40대 중년들도 한국에 오는 것이 그들의 성공척도이고 부러움의 기준이기도 하다.

우즈벡의 젊은이들이 한국 근로자로 약 35,000명 정도 와 있다. 거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

며 1~2명부터 10여명이 한 회사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우즈벡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갔다 온 우즈벡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근로 당시 좋은 기업주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거의 갔다 온 사람들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다시 한국에 일하러 가곤 한다. 간혹 기업주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갔다 온 그들은 대체로 그 동네에서 부유층에 속하고 자동차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즈벡에서 온 근로자들을 민족별로 구분하면 고려인과 우즈벡 민족(기타민족 포함)인데 고려인들은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5년 이상 장기비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며 본인이 원하면 더 비자

연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고 우즈벡에 있는 현지 고려인들과 연계하여 비즈니스에 종사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즈벡인들은 거의 1회(3~5년)에 한하여 근로자로 오고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다시 한국 갈 기회를 갖기 때문에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불법체류를 시도하고 계속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이다

고려인들 중에는 한국의 교회와 연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고 실제로 고려인 목사를 중심으로 고려인과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추방된 우즈벡 한국선교사를 중심으로 우즈벡 노동자들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최근에 안식년을 하면서 경기도 S시에서 우즈벡 노동자들이 매일 저녁 식사하러 오는 식당주인과 연계하여 12명의 우즈벡 노동자를 섬긴 일이 있었는데, 30대 후반의 가장들로 구성된 이들에게 매일 정성껏 식단을 준비해서 그들을 섬겼고 특히 우즈벡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 그들의 향수를 채워주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들을 노동계약 만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섬겨주고 복음을 나눈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것이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국에 들어가서도 기존 그리스도인들과 연계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서 그들의 민족에게로 가서 선교

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설사 복음을 접했지만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에 대하여 거부반응이나 심한 반발감은 덜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조금만 우리 생활 주변에 눈여겨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제는 우리들의 눈을 우리 민족에게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약간만 돌린다면 섬김의 기회를 쉽게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반면에 국내 외국노동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몇 년전에 우즈벡 선교사로 있던 A선교사는 우즈벡에서 컴퓨터관련 교육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보내는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는데 그들 중 몇 명이 이 사실을 우즈벡 정보기관에 알리어 역으로 그 선교사를 고발하여 추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복음을 받기는 고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가 속한 단체의 모든 분들이 현지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요약하자면 복음을 현지에서 전하지 않고 한국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사례이다. 물론 이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처리했다는 말은 아니다. 아쉬운 것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국내에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사들과의 연관성을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선교사는 추방되고 효과는 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해외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절대로 현지에 사역하는 선교사와는 관련을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에 갔다 온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 모두 정보기관에서 특별면담을 하게 되고 종교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들을 모두 말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을 주기적으로 호출하여 자국내에 한국사람들과 교제여부, 종교생활 지속성 여부를 계속 체크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즈벡 노동자들은 현재 한국내에서 그들만의 교제네트워킹이 있다. 주일이나 금요일에 이슬람사원에 가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그것이다. 그 모임에서 그들의 권리와 이권을 위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환치기를 통한 외화송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등등 거의 가족같은 민족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입국하고 언어를 습득하지 못할 그때에 초두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만나고 섬겨서 우리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음전도와 더불어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지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양육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에 보내어 직장을 갖게하거나 공부를 하게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물질문명과 편리성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타락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한국교회에 연계하여 교회의 협력하에 책임있는 관리자를 두고 시행해야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즈벡 노동자 중심으로 한국내에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면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찌

되었던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받을 것이고, 단 한 영혼이라도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우리 **한국의 손님들**이다. 그들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로운 모습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줄 때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우리들의 섬김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지 그 어찌 알겠는가?

“한국 내에서 해외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절대로 현지에 사역하는 선교사와는 관련을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교지 대한민국!



제자로 양육하여 선교사로 재파송하라!

송성규목사

일산명성교회 담임,

KDM선교회총무,

세이브존백화점 예배담당목사



제자, 양육, 재파송!

2000년대 초 선교사 파송식 예배에 참석해 보면 파송 메세지가 거의 다 이랬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예를 들면서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는 설교나 권면이 강했다. 요즘 선교사 파송예배에 가보면 그런 권면이 거의 없어졌다. 무슨 말인가? 그 만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연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는다고 해서 선교를 잘 한 것인가?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정신과 자세로 선교에 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먼저 드린다. 그렇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분들의 입장에서 선교사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은 선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지구촌시대이다. 아프리카 오지의 행사를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시대이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만 많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선교 전문가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시점에서 유니버설 케어가 이런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서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음을 감사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선교는 영상을 통한 선교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유튜브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성경이야기 등이 필수이다. 또한 한국내 외국인들을 재생산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선교라고 본다.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워서 그 교회를 빨리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그 나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략 50 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80 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계속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국내 인구성장률의 급격한 감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유입 분야도 과거 3D 업종에서 전분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제 3 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던 흐름 위에 이미 고급인력의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교수로 임명되거나 대덕연구단지에 고용된 석, 박사급 이주근로자들이 그 예다. 앞으로도 서비스업, 굴뚝 없는 연구, 농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갈 것이다. 이들은 산업연수생 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유럽교회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능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처해 온 한국교회도 선교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사역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구제보다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더욱 중심으로 해야 하며, 사역 전문성을 확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이민자 수는 약 1 억 7 천 5 백만 (2002 년 현재) 으로 추정한다.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나, 최소 50 만 명에서 최대 60 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95 년 1.65 에서 2000 년 1.47, 2004 년 현재 1.19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의 20~40 대 주요 경제인구는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이 가속화되어,

인구성장률(출산율)의

유럽교회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능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처해 온 한국교회도 선교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사역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경제인구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2050 년에는 총인구의 35%를 이민 받아야 2000 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자료도 있다. 이제, 수년 내 1 백만 외국인근로자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혼구원과 제자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있어 소개해본다. 인천

남동공단과 안산지역중심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을 상대로 선교하는 **김성수선교사**, 안양에서 이주민들을 상대로 국제 위디 선교회를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하시는 **안양 산소망교회 문창선목사**, 우즈벡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영제목사**, 그분이 설립한 **디아스포라 신학교** (여기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해 야간신학교로 운영함), 그리고 제가 소속된 국제 **K.D.M 선교회** (이곳에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해외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훈련된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 2년-3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킨 후 그 나라에 지도자로 파송.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1명, 러시아 1명, 필리핀 1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국 1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정진호 원장이 섬기는 **유니버설 케어**에서도 몽골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선교의 한 방법이다. 아울러 극동방송에서 저녁 시간때 딱 10 분이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인도네시아 설교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이 방송을 듣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고 그들 중 몇 명은 벌써 신학훈련을 받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가 ?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자.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함께 이뤄진 한국교회의 대처는 이제 20여년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선교 초기부터 독립적인 사역

방향과 전략으로 각개 전투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교회별, 선교단체별로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다양한 사역 개발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각개전투는 정보와 노하우의 교류를 저해한다.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사역을 하고자 해도 맨 땅에서 시작하게 된다"**며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역 메뉴얼을 만들어 객관적인 정보로 사전 이해를 돋고, 사례를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사역을 목회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상당수 비전문가인 담당 사역자들의 주기적인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이다**. 소수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현지어로 동시통역하는 해프닝이 매주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정책은 인권, 복지, 구제에 치중하거나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중시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져 왔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1.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자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먼저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집중적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과 제자양육에 힘써야 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들을 통해 세계선교를,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이루시려는 계획말이다.

2. 외국인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문화로 예배드릴수 있도록 현지인 선교사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자리를 잡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사명자를 발굴하여 신학공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훈련 된 자들을 그 본국의 지도자로 재파송하는 일을 해야한다.

3. 외국인 선교와 제자양육, 그리고 재파송 하는 일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각자가 각개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이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협력, 연합정책이 필요하다 (now we should help another between para churches and local churches).

4. 또한 외국인근로자 사역자들에 대한 대우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선교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후원이 없어 종도 탈락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5. 외국인근로자 사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며, 단체간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굳이 힘든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변화시켜 내는 일은 세계선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교회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제처럼 선교 한국은 이제 안으로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선교에 주력하고 밖으로는 북한 선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주력 해야 한다.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선교사가 10 만 명 될 때까지 유니버설케어 선교회와 부족한 저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글은 계속 될 것이다..

선교지 대한민국!

외국인

차세대

통일

동포 사랑 치과

이미영

경희치대졸업

치과의료선교회(DSI) 회원

광진구 구의동 동원교회



7 호선 남구로역에 내리면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은 특별한 거리가 나타납니다. 그곳은 연변거리라고 불리 우는, 중국에서 자라고 살아온 우리 민족, 중국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중국의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분 들입니다. 식당에서, 건축지에서, 그 외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분들은 어느덧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지요.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사는 곳, 가리봉동에는 조선족을 위한 교회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동포 사랑 교회의 2 층에 조그맣게 치과 진료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저의 계획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의 관심사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단어 조차도 생소할 정도로 무지했으니까요. 정말 피하거나 생각할 새도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황의 흐름 속에서, 2009년 11월, 동포사랑교회와 치과의료선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치과진료 사역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세 번 놀랐는데, 첫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지역의 이국적인 분위기였고, 두번째는 같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언어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름아닌 바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봉사활동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 항상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봉사지에 갈 것이고, 환자들은 천사같은 얼굴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올 것이며,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모든 진료와 일이 매끄럽게 술술 풀릴 것이고, 끝난 후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보람차서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는, 여전히 자기중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주일 오후 두시 반에 무료 진료소에 들어서면 일찌감치 온 환자들이 이미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차례대로 봐 드리겠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고 잘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큰소리로 무섭게 화를 내며 가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진료 장비는 열악하고, 기구는 부족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며, 정말 잘 해 봐야지 하는 마음에 다정한 목소리로 환자분께 "괜찮으세요?"하고 말을 걸자, 무뚝뚝하게 "일 없어요." 라고 하십니다. 치료를 해 드리려고 보니, 이건 하루 아침에 해 드릴 수 문제들이 아닙니다. 교합이 무너져 있고, 치주가 모두 망가져있고,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보철물들이 들어가 있고... 아프다고 하시는 치아 하나 빼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정신없이 그럭저럭 진료를 마치고 나니, 피곤하고 지쳐 버립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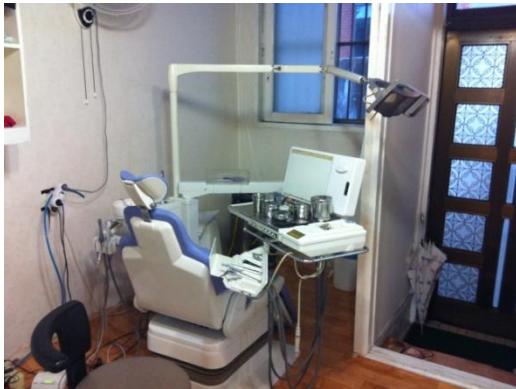
다음 날 출근해서 진료를 하고 또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문득 조선족, 이 분들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입력하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 절반 이상이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저녁에 오랜만에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집에서 일하시는 중국동포 아주머니에 대한 불만을 잔뜩 토로합니다.

자아도취가 가미된 헛된 기대에 빠져 있던 저는 단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환멸감으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기에, 기구들도 다시 정리해서 배치하고, 봉사하기 위해 오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해 아기자기하게 메뉴얼들을 만들어 벽에 붙이기도 하고, 예약제로 바꾸어 환자수를 미리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환경이 조금씩 정리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듯 했습니다. 첫째, 셋째주



주일 오후 두시 반. 차차 저는 기쁜 마음이 아닌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끌려가듯 그곳에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갑자기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된 저는 그대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도 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제가 갈 곳은 그곳 뿐이었습니다. 철없이 둘떠있다가 현실에 부딪쳐 힘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어김없이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미소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방금까지 기도 속에 쏟아내고 있던 원망과 허망함과 자기연민이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자신감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주님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전에는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가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환자분들은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신 이유는- 본인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과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뿐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치위생과 학생들 또한- 이 역시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경험을 쌓거나 봉사활동의 보람을 맛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와 주는게 그저 고마운 정도였다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던 중, 정말 헌신적이고 영리한 자매를 한 명 보내주셨고, 지금은 그 친구가 또 작은 리더가 되어 학생들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치우치게 몰리기도 하고, 기계가 가끔 작동하지 않기도 하고, 저 포함 봉사자들이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신 주님의 일하심과 이제는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는 동포들 사이에서, 예전처럼 휘청거리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잠깐만 참았다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한 두번 현실을 겪고 난 후, 야심차게 써 놓은 것들 중에는, “진료의 범위 설정: 어디까지가 합리적이고 안전한가?”하는 이성적인 척하는 항목도 있고,

"복음 증거: 매 진료 전에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자."하는 아부성의 항목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껌데기인지 하는 착각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은 매번, 치과진료라는 매개와 저의 귀한
은사를 통해, 저와 이분들 사이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진심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사랑, 그것을 통해 주님은 저를 변화시키시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게
된다면, 어디까지를 치료해야 환자에게
유익할까 라던가 복음을 어떤 기회를 타서
증거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그냥 고민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내 곁으로
직접 찾아온, 멀어봤자 전철로 다다를 수 있는
그곳에 자리잡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각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간에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 그것이 선교이고 그곳이 선교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지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하여(For next generation)

최달호 목사

송내성문교회 담임
경인지방 SFC 간사



들어 가는 말

난 어릴 적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는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교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소중한 삶의 비전을 보여준 곳이었다. 그렇게 찾은 어린 시절의 비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에 찾은 작은 비전은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는 일이었다. 나에게 전도사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울 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전도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 것이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은 그리

험난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간의 고난과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 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역은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 때 품었던 첫 사역의 감정을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도 그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첫 사역을 시작한 후 25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는 그 때의 감정만으로는 사역할 수 없음을 빠저리게 자각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사회적인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나에게 얼마 전 정진호집사 (유니버설 케어 대표)가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마디를 던졌다. **다음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의 교회학교를 사역하는 일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의 고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사역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음세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선교적인 접근으로 저들을 얻을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세대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사역이 점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에 대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For next generation)**'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려 한다.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이 글은 자극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전문적으로 연구한 다른 학자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1.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지금의 세대가 아닌 미래의 세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음 세대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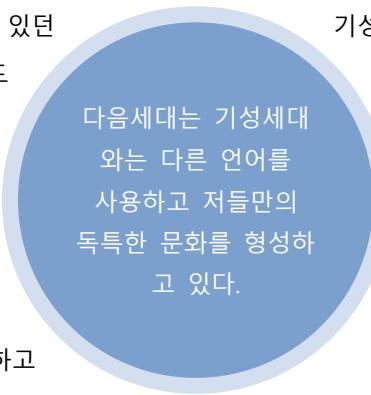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금은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반드시 다음세대에는 주축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미래를 책임지라는 말을 싫어할 것이다. 때문에 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응의 실패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걱정하며, 자신들의 어릴 적을 이야기하며 다음세대들을 비난하고 죽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방황하는 지금의 세대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걱정과 염려만 할 뿐 다음세대들에게 다음세대를 책임 져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교육의 열정과 질이 높아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믿는 이유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심심하지 않게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시작했다. 공개되자마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다음세대들에 의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이 먼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다음세대들의 탈선의 수위가 기성세대들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위험해 졌다. 다음 세대들에 의해 발생되는 이런 저런 사건의 현장에서 기성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지 방법조차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교권은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진 교권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다음세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인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다음세대들이 속한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가정에서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할 일군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사회의 규범과 법률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과연 방황하고 있는 세대들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미 병들어 있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좀 비약하는 감이 깊지만 사단의 세력에 다음세대들은 장악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기성세대들을 향하여 짜증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기성세대들의 충고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 기성세대들이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맞았다는 것이다. 과연 저들은 누구이기에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식의 폭력자들로 변해버린 것인가? 안타깝지만 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다음세대들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2. 다음세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1) 선교적 관점에서 다음세대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다음세대는 한 민족이다.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김치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저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기성세대는 다음세대들에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들을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선교라면 당연히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이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적 관점을 다음세대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해외 선교하듯 해야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음세대를 책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지에 온갖 종류의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듯이 다음세대들에게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초청해야 한다.

다음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기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다음세대들이다. 때문에 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완성되어 지는 일이다. 다음세대들이 진정한 변화를 받아 미래를 준비하게 하려면 역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결국 교회는 다음세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약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3) 공동체의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세대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향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다음세대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개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개성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개인의 성향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합하느냐에 있다. 이것의 해결방안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다음세대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교회만큼 개인을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곳도 없다. 교회는 개인의 이익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세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문제는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느냐에 있다. 교회마다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방법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간에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는 분명한 목적의식만 세워지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일이다. 이처럼 다음세대들이 아무리 강한 개성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공동체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4)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세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훈련되지 않은 선수에게 경기장에 나가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 마찬가지로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다음세대들에게 무조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니 책임이니 하는 말은 그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혹 다음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물론 기성세대가 무능해서 다음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음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미래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 다음세대들이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세대들은 마련된 무대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음세대에게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5) 현대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로 양육해야 한다.

다음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놀이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지는 다음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를 다양으로 만들어 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다음세대들의 문화적 흡수력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많다. 다음세대들이 즐기는 현대문화는 과거 기성세대들이 즐기던 문화화는 완전 다른

세상이다.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다음세대들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다. 다음세대들이 즐기는 문화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기성세대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다음세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세대는 컴퓨터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문화에 대한 선교적 접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선교는 선교대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세대들의 컴퓨터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적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기성세대들은 온라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세대적 갈등을 푸는 것도 기성세대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가 된 것이다.

3. 다음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

1) 선교적 사명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인가?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모든 풍요로움의 문화와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교지에서 자신이 먹던 그 음식을 찾아다니며, 놀이 문화를 즐긴다면 그는 더 이상의 선교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다음세대를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열매를 거두려면 기성세대의 아집과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음세대의 언어도 놀이문화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의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사역의 고집(?)을 버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사역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투자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선교는 물질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역이다. 하지만 다음세대에게 물질만의 투자로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세대들은 이미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물질 만능 주의로는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세대들에게 투자해야 하나?

(1) 다음세대를 연구하라.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역시 기성세대의 기준을 버리는 일이다. 다음세대의 눈을 가지려면 다음세대를 적극적으로 연구함이 필요하다. 다음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소유하고, 어떤 문화에 빠져 있으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또 살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를 정한 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수년간

공부하고 체험하는 일처럼 다음세대도 그렇게 연구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음세대에게 물질을 투자하라.

다음세대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도 물질만능주의의 혜택을 보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세대들이 왜 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물질이 곧 부패라는 잘못된 인식을 기성세대들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역기능에 의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어쨌든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마음으로 다음세대들에게 선교적 차원에서의 물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다음세대에게 교육을 투자하라.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지금의 모든 이야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러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한 가지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육하기보다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본인의 학생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공과공부에 열을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청년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일은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체계적인 성경공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교육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는 결국 다음세대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음세대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늘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전을 품으라는 교육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음세대들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하는 일은 당장의 성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나오는 말

다음세대를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생소하거나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세대를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사역적인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다음세대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결단코 위의 내용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다른 사역자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

밝히는 바이다. 본인은 다음세대를 위한 염려보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 해왔다. 사역 중에 다음세대들에게 당하는 황당함은 때때로 좌절감과 허탈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이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다음세대를 향해 소리 지르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한 명의 사역자로서 선교적인 접근으로 저들을 얻는 일에 열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선교지 대한민국!



침체 된 다음세대 사역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사랑과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슴 벽찬 예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양진수집사
광성교회
WISEMEN WORSHIP 대표



몇 년 전 대형교회 다니는 후배에게 사역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인도 좀 부탁드려요.” 교인이 1,000 명 이상 되는 큰 교회에서는 보통 찬양과 경배 인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사역요청이 없습니다. 사역 요청을 거절할 마음은 없었지만 굳이 외부 찬양 팀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희 교회는 크니까 예배 인도자도 많고 찬양 팀도 많을 텐데 왜?”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들려온 한숨 섞인 후배의 대답은 이후 WISEMEN WORSHIP 의 주요 사역에

청소년사역이 포함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도 별로 없지만, 도와 줄 대학부나 청년부가 별로 없어요. 교인 평균 연령이 65 세라 30 년만 지나면 성도 대부분이 죽고 없어요....제발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 평균 복음화율이 지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대략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20 대 복음화율은 3% (출처:크리스천투데이)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인 10~20 대들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벤트성 처방만 계속하게

된다면 30년 후 한국 교회 성도는 다 온데 간데 없을 테고, 지금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박물관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모슬렘 사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7)”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6)”

성경은 분명하게 예배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청소년 사역에 재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자기 자신이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왜 구원 받았는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예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없다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일시적 혹은 제한적 해결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시적인 수련회 신앙 체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교회 중장년은 대부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신앙체험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그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의 귀중한 알곡들이 되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숙된 크리스챤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수련회에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등 유해한 환경 등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학진학, 성적, 성공, 물질만능주의 등이 교회까지 침범해 장로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까지도 주일날 예배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밖 학원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 밭을 더 메마르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마지막 때 수많은 유혹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을 위해 예배의 중요성이 성경을 통해 계속 강조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힘겨운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 년에 한두 번만이 아니라 매주 진리와 영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참된 예배가 매주 드려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맘에 들지 않는 학원을 관두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 5:23~24)

“아이들이 마음껏,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람과 형식이 중심이 되어버린 껌데기 예배를 개혁하여 하나님과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중심 있는 예배’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칼빈의 제네바 예배의식(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배학)’이고 지금 장로교 예배의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이면 썩듯이 아무리 좋은 예배 형태라도 오랜 기간 변화지 않고 정체해 있으면 오염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것들은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즉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나 음악, 순서들은 시대에 맞게 변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 안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백성들의 형식만 있고 중심이 없는 예배를 비판하며 회복되어질 것을 외쳤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형식이 중심이 되어 썩어져만 가는 예배를 돌이켜 오직 공법과 정의가 흐르는 십자가 중심의 가슴 벅찬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과 효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며, 우리 인간의 창조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거나 깨닫게 할 필요 없이 예배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음세대인 10~20 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감격적이고 실제적인 임재가 예배가운데 이뤄지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이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은혜 안에 튼튼히 심기어 져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라는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안에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다음세대 모두가 알고 누리는 그 날 까지...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의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으로 노래하며,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춤추며,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려 눈물로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가슴 벅찬 예배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 대한민국!



한국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서...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톱 나다누 선교사

한국의 어린이들 교회 출석률이 3%라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주일 학교가 운영 되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온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듣게 된 변화의 소리다. 일본의 많은 지역이 쓰나미 때문에 초토화 된 것처럼 한국의 주일 학교도 마치 이러한 형국이 되어버렸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고국 교회 주일 학교를 빠르게 훑쓸어 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긴다. '한국의 주일 학교 사역을 이제는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너무 생소했고 또 다소 어리둥절 했지만 한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든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만큼 어린이 복음화율의 낮은 비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것이다. 한 때는 한국의 개신교 비율이 기독교역사 100년 만에 국민전체의 20%라 할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였는데 말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전보다 약해지셨기 때문이고, 한국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인가?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는 우리 자신, 즉 신자들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실은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원론적인 대답, 어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든지, 교회가 주일 학교 사역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 또한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자로써 현재의 결과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통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국의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 몇 자를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또 사명에서 도망하지 말자.

먼저 나 또한 러시아 선교사로서 러시아의 어린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이유는 러시아 개신 교회가 주일학교에 쏟는 열정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출석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을 수 있다. 첫째로는 러시아 개신 교회가 자신들의 모임장소, 즉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주로 주일 모임만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가 비싸 일주일에 여러 번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개신 교회 예배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조금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장년 예배 시간에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린다. 또한 한국처럼 잘 훈련된 교사도

부족하다. 이처럼 러시아 교회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공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종교법이 어린이 예배를 금하고 있다. 러시아 종교법 조항에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직 스스로 자신의 신을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에 어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처럼 이 곳은 어린이 전도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교회 출석이 가능하다.

카자스탄에서 선교 사역 중 있었던 일이다.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는 어느 주일 아침, 종교성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2-3명의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다. 이유는 주일학교라는 명칭 때문이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다. 건물과 교사, 그리고 커리큘럼 등을 물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하에 교회 출석을 하는지를 물었다. 어이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하면 누구나 교회의 어린이 예배모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일학교'라는 명칭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했다.

이처럼 어디에서든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에는 방해요인이 있다. 그렇지만 환경요인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러시아처럼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일 학교사역을 할 수 없다느니, 국가에서

주일 어린이 예배 모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어린이 예배를 법으로 금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얼마나 주일학교를 운영하기에 자유스러운가!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지도 않고, 또 공간도 풍성하니 말이다. 참고로 이 곳은 어떤 공공 기관의 건물도 종교 모임의 장소로 임대가 불가능 하도록 법으로 금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시대가 변하여 옛날과 같지 않다든지!' 하는 환경을 탓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들고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환경을 탓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알고 있다!'고 말이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린이들의 교회 출석률 저조는 곧 모든 신자들 자신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됨을 인정하고 신자들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자.

얼마 전, 한국에서 강의 차 오신 교수님과 식사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분은 자신을 역사학자이며, 서울 소재 모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였고, 모 교회의 장로라고 하였다. 그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이며,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그런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류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몇 차례 문을 개방했을 때, 한국 교회 대표로 북한의 봉수 교회에서 강연까지 했다고 하였다. 화려한 경력이었다. 그러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분은 대화 중에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서,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신자가 한국 교회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라며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 타 문화권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나요?' '모슬렘권에도 자신들의 문화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나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내 옆에는 마침 북카프카즈 모슬렘지역에서 힘들게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함께했다. 자녀들 방학을 맞이하여 잠시 우리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마치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도대체 이런 신앙을 가진 분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 믿음이 약한 평신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장로의 입에서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는 내노라할 정도로 이름있는 교회의 장로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 한편으로 분개함을 느꼈다. 물론 장로님 개인에 대한 분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어린 영혼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그분을 통해 나는 한국 교회의 일부가 왜

W.C.C에 가입을 하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장로님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의 일그러진 신앙의 한 부분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그 세속화의 물결에 모든 신자들도 동화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바라는 바는 정말 위의 장로님처럼 우리 스스로도 세속화라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결해야 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해야 할 믿음이 약해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곧 나의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무장 하자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요나 선지자처럼 사명을 피해 달아나는 나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야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곧 내 가정이 잘되는 일이고, 또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고, 더 나아가 한국이 잘되는 일이며, 또 한국 교회를 통해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환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되돌아 보도록 하는 경고를 준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대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한국은 강대국들의 전쟁 마당이 될 것이다. 내 자녀와 우리 모두의 후손들이 그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어떤 강대국들

도 결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없다. 깨어서 한 어린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이 나를 통해 이뤄지고 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국이 되기를 소원한다.

마지막으로, 주일 학교의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며 또한 대안이다.

얼마 전에 우리 집 큰 아이 지민이의 생일이었다. 생일이 되면 지민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이모부 모두가 축하 전화를 보낸다. 물론 가족 모두의 생일 때 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 당연히 이곳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든 식구들의 생신 때마다 국제전화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시골 태생인 나는 처음에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자라면서 생일 축하선물을 받아 본 기억이 없다. 당연히 생일상을 받고 가족들 모두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지도 못했다. 그래서인지 나 또한 결혼 전까지는 가족들 생일을 기억했다가 생일 축하선물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축하 전화 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생일 축하를 하게 된 것은 결혼 이후부터다. 실은 아내를 통해 배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내 또한 가정에서 그런 삶을 배웠기 때문이다. 생일축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가정에서 어떻게 배우며 자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자의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참된 신앙의

삶에 대한 배움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모가 비록 교회출석을 잘 했을지언정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늘 너무나 자주 착각하며 산다. 부모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녀들도 교회에 잘 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비성경적인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중 마치 불신자들 가정의 자녀들처럼 비뚤어지게 나가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단지 목사의 가정, 신자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하여 그 아이가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느냐가 중요 한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참 모습을 보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 보면서 자녀는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모를 통해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분명 세상을 더 잘 배우고 또 세상의 자녀가 될 것이다. 곁 모습은 부모를 닮았어도 속은 부모를 닮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비록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참 모습을 보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 보면서 자녀는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심겨지지 않는 자녀의 마음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모들을 향하여 가르친 말씀은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이었다. 즉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다(신 6:7).

제사장들에게 보내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라고 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 버린 채, 자신들의 의무로부터 뒷짐진 채 살아가는가! 오직 부모만이 자녀들의 참된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물론 불신자의 자녀들은 이런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전도하고, 신앙의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요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불충분한 메시지인 니느웨의 심판만을 외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니느웨가 회개하였다.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의 연약함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곧 신자인 내

자신의 믿음의 연약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회개함이 필요하고,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바른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주일학교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루**

어질 것이다. 신자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왕성해지도록 간절히 기도 드린다.

선교지 대한민국!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성훈 목사
오정성화교회 부목사
Universal Care member



몇해 전 모 신문사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680만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또는 1,200만명으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은 과거에 200만명이었던 천주교인들이 600만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충 짐작건데, 기독교에 적을 두고 있었던 자들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천주교로 개종 하지 않았을까? 물론 통계청의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 관료의 입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통계라고 하니 신빙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통계가 힘을 얻는데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갈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과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20%도 안된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실제로도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웃음 소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일부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세습화, 사역자들의 부족한 윤리의식, 그밖의 여러가지 요소들도 인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전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이유이기는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인식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다. 이 둘 모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두 명의 지도자 중 조금 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모세를 꼽는다. 모세의 삶이 드라마틱해서가 아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이 더욱 멋져서도 아니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의 곁에는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러 나가는 순간에도, 전쟁을 하는 순간에도 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장소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 지도자의 자리는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로 승계되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후는 어떠한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사기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이끌 지도자의 부재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며, 다음세대를 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 들일 것인가? 바로 기성세대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전도의 관점이 아닌 선교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선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지칭한다. 그래서 보통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일컬어 '선교사'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들은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 들을 수 있고, 그들만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이들에게 기준의 방법만으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할까?

기성세대와는 달라진 문화

어릴적 많이 부르던 동요가 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
만 먹고 가지요

아마도 우리는 이 동요를 부르면서 옹달샘의
깨끗함을 떠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
들은 어떤가? 물론 예전처럼 서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옹달샘의 깨끗함을 이야기 하는 아이
들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비평을 한다. 세
수 하러 간 토끼가 목적을 상실하고 어이 없
게도 물만 먹고 왔던지, 환경이 파괴되고 있
는 이 시대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 어디 있나
는 등 예전과는 시각이 다른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놀이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의 놀이문화는 공동
체 놀이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체 놀이
를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남자 아이들의 경우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는 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디지털 놀이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얼마 전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던 중 여기저
기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 가 보았더니 여지
없이 '애니팡'이라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
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가상공간 속에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음성이 아닌 문자로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
회 안으로 끌어들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
로,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교육시설의 고급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불과 십수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우선 교육 시설의 고급화다. 이미 모
든 학교에는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들이 최상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태블릿PC
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학교도 있
다고 한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는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생부터도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실태는 어
떠한가? 예전에 우리들은 교회가 세상의 교육
을 이끌었다고 자랑해왔다. 세상의 교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교육을 통해 이
루해 왔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자
만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이미 교회 교육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가 좋아가
기에도 힘들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다. 반드시
좋은 교육 시설을 통해서만 좋은 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 시설은
더 효과적으로 교육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
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교회 안을 들여다 보자. 조그마한 공간
에서 예배 드리고, 시끌시끌한 그 공간 안에서
각 반이 따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리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설은 그렇게 좋
지가 못하다.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은 부족하
게 되어 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 여유가 없
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한 상
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필자
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아
이들의 예배 장소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

지만, 장년들이 예배 드리고, 활동하는 공간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할 정도의 시설들이 많이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투자이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환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 좋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교육내용의 고급화

교회 교육에 있어 교육시설의 고급화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 내용의 고급화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내용은 기성세대의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성세대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배웠던 수학(예전의 산수)내용을 생각해 보라. 1학년때 배웠던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 개념과, 덧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1학년 아이들의 수준은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옆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논리적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수열'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고교 과정의 '수열'과는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이지만, 1학년 아이들의 사고 수준이 이만큼 성장했음을 보여 주는 문제다.

필자에게는 현재 5살된 딸과 이제 막 태어난 딸이 있다. 큰 딸이 4살 되던 해 필자의 가정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다른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이를 처음으로 보육시설에 맡

기기 위한 고민이었다. 아마 모든 가정들이 그려하듯이 단순히 아이를 돌봐 주는 기관이 아닌 아이가 신나게 놀면서 원가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원하던 보육시설을 찾지 못했다. 고민하던 끝에 놀이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국 교회의, 그것도 부목사의 사례비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필자에게는 한가지 원하는 바가 있었다. 소위 말하는 잘나간다는 꼬



마 아이들의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특별한 것들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교회 교육에 접목할 수만 있다면'이란 생각을

가지고 놀이학교에 입학 시켰다. 예상대로 놀이학교는 비싼 값을 했다. 무엇일까? 다른 아닌 교사 1인당 8명 내외의 아이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교육 받고 있는 모습과 수업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인터넷에 공개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있는 'Story Day!'라는 것을 통하여 책에서 배웠던 내용을 직접 체험하며 그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 시키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비행기를 한번도 타보지 못했던 필자의 딸아이가 Story day를 통하여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부터 비행기 탑승,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을 마치

실제로 해외 여행을 해본 아이처럼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을 이미 우리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미 교회 교육은 다수의 교육이 아닌 소수의 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사 1인당 7,8명 내외의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각별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 받듯이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채 무조건 암기만 시켰다.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교육 기관에서도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다듬고, 조금 더 효과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경속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필자는 주일학교 활동중에 성경 속 이야기를 '**Story day**'라는 날을 만들어 직접 체험해 보았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였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복장을 이스라엘 시대로 되돌렸다. 그리고, 예배실은 마치 결혼식 연회장처럼 꾸몄고, 테이블마다 음식들을 놓았다. 예배실에 들어선 아이들의 표정이 달랐다. 포도주스를 따라주고 빵을 먹다보니 준비한 주스가 떨어졌다. 그때 한 선생님이 외쳤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유심히 지켜보았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선생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자, 또 다른 선생님이 투명한 용기에 담긴 물을 항아리에

부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복분자즙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 보았다. 그렇게 예배는 진행되어졌다.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속의 이 장면만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내용은 이제 변해야 한다. 세상 교육의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 맞게 걸러내고, 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형식에 앞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주기를 위한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

선교지에서는 그곳 상황에 맞춰 진리의 문제 가 아닌 이상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의 경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 이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선교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곳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선교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닐 것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선교는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계속되어야 하듯이, 지속된 선교를 위해서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선교지마다 고민하는 것은 그들을 세워 다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야 한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큰 사명이지 않을까?

선교지 대한민국!



북한을 통한 통일 선교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
KOSTA 부흥강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남북한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국가의 정통성 차원에서 남북은 영적인
대척점에 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영적 제사장나라로 사용하고 계시기에 영적
봇물 같은 통일조국의 선교진출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공격임을 알 수 있다.

엡 6:12 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악의 영들과 공중
권세잡은 자와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한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탈바꿈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우리는 1 인당 GDP 가 2 만 불이 넘어서고,
연간 음식쓰레기가 18 조 원에 이르는 민족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1945 년 2 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UN,
월드뱅크 등이 한국을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영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었다.

지난 50 년간 초고속 경제성장 신기록에
비견할 만한 영적인 신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다. 1885 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된 지
127 년 만에 한국교계는 6 만 교회와 1 천만
성도 규모로 성장하였고, 현재 세계 10 대
교회 중 7 개가 한국 교회이다.

또, 한국은 약 25,000 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여 약 45,000 명을 파송한 미국에
뒤이어 세계 제 2 위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3.3 억으로 남한 인구
5 천만의 6.6 배인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비례로는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 위 선교사 파송국임을 알 수 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개원한 날,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첫 국회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도 안 되었던 정부수립기에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특별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셨으며, 이제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게 하셨다.

이 강산에 두 개의 거대한 영적 총돌이 일어난 곳이 한반도다.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 1926-53년-27년)의 영향으로 시작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가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 출생이다. 그는 기독교 가정출생 (김형직 숭실출신+강반석 칠골교회 강돈육장로의 둘째 딸, 외조부 강돈육의 육촌동생 강양육 해방전 평양 암정교회 목사)이다.

1926 마골이란 마적단에 입단하다 2년후 1929년-고려공산청년회(17세) 들어간다. 다시 3년후 1932년 조선 독립군 이종락 부대입대, 중국공산당 유격대에 가입하여 1940년까지(28세) 있다가 1940년 12월 동북항일연군 5군이 일본의 소탕작전으로 소련에 입경한다.

1942년 김정일을 낳고, 소련 극동군 88 특별정찰여단에 소속되어 제1중대장 김일성이 사망하자, 32세의 김성주를 제2방면군장과 소련식으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김일성을 계승하여 소련군 대위계급을

달고 북한에 입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

이것의 의미는 해방후--적그리스도의 세력이 7귀신 데리고 들어 온 것과 같다(마 12:45) 김일성 주체사상(수령-당-대중)은 사회적 정치생명체로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유훈통치로 유령통치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마 24:15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붉은 용(계 12), 한 짐승(13:1-10)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든 김일성 일족

1994-1999년 불과 4년 만에 300만이 굶어 죽게 만든 땅(-->그때 금수산 의사당을 7억불 들여 지음)이고, 올해도 20-30만 굶어 죽을 것이란 보도다 김일성 사후 18년 동안 450만이 죽는 나라로 만들었다.

사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말한 것처럼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다"라고 했다. 영혼의 존재도 정신적 가치도 다 부인한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terrorism)의 영이 그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특별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셨으며, 이제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게 하셨다.

본질적 힘이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기를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고 공동소유로 만들라"고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화해도 좋고, 살인해도 좋고, 거짓말해도 좋다고 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이므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것이다.

요한복음 8 장 44 절에 "...저(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murderer)..."라고 지적했음을 기억하라 그 증오와 탐욕의 스피릿은 이 땅을 피로 물들였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에서만 남쪽에서 230 만 명, 북쪽에서 290 만 명이 여타 전쟁에 비교해보아도 한 지역에서만 치루어 졌던 전쟁이면서도 520 여 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었다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6.25 전쟁미망인만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 만 명, 전쟁고아가 10 만 명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갈데 올데 없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갔다.

소련의 비밀경찰 두목,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살인자 명단이 383 권의 책이었다고 한다. 공산주의 혁명을 핑계로 죽인 자가 4,500 만 명이나 되고, 모택동이 죽인 사람은 6,400 만 명이나 된다.

전 주월 대사였던 이대용 씨의 말에 의하면, 파리협정을 키신저 중재로 철석같이 맺었는데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파리협정을 어기고 침공해서는 36 시간 안에 26 만 명을

학살했고 116 만 명은 보트피플이 되어 바다로 도망하다가 11 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또 350 만 명은 재교육시킨다고 체포해 다 총살하고 말았다고 한다.

생체실험의 나라--영국 BBC 방송이 제작 방영한 '악으로의 접근(Access to Evil)'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의 생체실험에 참여했던 화학자 출신의 탈북자 정도 씨의 증언이 나온다.

정치범을 대상으로 혼합 독해물을 가스관을 통해 인체에 투여해 놓고, 사람들이 오그리고 앓은 상태에서 바닥을 긁으며 고통 속에서 버둥거리며 죽는 그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유령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건물. 경내에 봉수 교회가 있다.

조그련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평양에만 20 명 안팎의 목사, 전도사가 있고, 현재 평양 신학원에서는 9 기생이 전도사 신분으로 신학수업을 받고 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목회자는 목사 15 명과 신학생 12 명이 있으며 목사들은 각 시도 별로 담당해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한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조그련 산하에는 최소 20 명에서 많게는 3 백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가 최근 북한의 기독교 교인이 수용소에 수용된 5~10 만 명을 포함해 40 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그련은 북한의 기독교인은 만 4 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에 권력층을 포함해 50 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약 10 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아리랑 공연에는 유치원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0 만 여 명이 동원, 여름의 불볕더위나 추운 겨울에도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연습에 동원된다고 한다.

조그련 관계자에 따르면 산하의 목사들은 전국의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한다. 조그련 중앙위원회에서 얼굴을 보이던 이들이 수개월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남측 관계자들이 문의하면 "출장중이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출장중이라는 것이 가정교회 순회예배 인도라는 설명이다.

조그련, 봉수교회, 칠곡교회 등 북한이 전면에 내세우는 기독교 관련 단체는 모두 외화벌이 및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가짜단체이다.

김정일 정권의 향락과 유지를 위해 정교하게 훈련된 조직이다. 실제론 예수님, 구원 등.. 기독교의 그림자도 없는 조직이다.

봉수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 로동당 당원으로서 대남사업 일꾼들이다. 공산주의

혁명 투사임을 다짐하는 북한의 가짜 목사들은 '종교의 허황됨'을 주제로 매년 논문 한 편을 써야 한다.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예배도 없다.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 '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봉수교회 목사. 신도들이 행하는 소위 '예배'는 사전과 사후에 김일성 주의와 다른 사상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등 일종의 '정화의식'을 수반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 침투를 막기 위한 사전학습, 사후비판 같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도를 간첩죄로 다스리라'는 국가 안전보위부 지침(2002년)이 있었고 '기독교는 국가제도 전복 실현 수단이므로 끝까지 색출하라"는 문건(2005년)에도 보아 알수 있듯이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압송되거나 '비밀처형'이 자행된다.

남쪽의 죄

첫째, '낙태'이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매해 약 154만 건으로, 하루에 4000명 이상, 20초당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산부인과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는 154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태아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

낙태수술은 불법이므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대부분 현금 거래를 통해서 시술되며, 한 건당 50만 원을 전후하는 수입을 올리게 된다.

영적으로 볼 때 낙태는 자녀를 죽여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녀의 피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시 106:37-38)

둘째,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2)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 1:26-27, 32)

한국은 음란사이트 접속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세계 1 위로, 한국의 음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 파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6)

200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혼율 세계 1 위다.

셋째, 복음화의 발목을 잡고 저주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자살율 1 위의 검은 그림자, 독주에 빠진 풍요와 향락의 자녀들을 구해내야 한다.

넷째, 이 땅에 자욱하게 내려와 있는 불통의 영, 분열의 세력을 뚫고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과거에는 남북의 갈등과 동서의 갈등, 다소의 이념적 갈등, 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일체감이 있었다.

현재는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한미간의 갈등까지 갈등의 요소가 증가했다. 통합적 사고의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복음통일 비전까지 서로 상반된 길을 가게 함으로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건강하게 통합할 리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미국의 국가적인 죄악을 끊게 하셨다.

아브라함 링컨을 정치계에 선교사로 파송 하셔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구조적인 죄악인 흑인노예제도를 무너뜨리셨다.

흑인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 미국에 전도자 무디를 통한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학생 자원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로 나아갔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헌신이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등의 한국선교에까지 이른 것이다.

남북 다 합쳐봐야 인구 7천만 명, 영토 20만 평방의 여전히 조그만(?) 통일코리아가 2050년 GDP 규모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가를 모두 제친다?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37년엔 프랑스를 앞지르고 2041년엔 독일을 마침내 2049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명실공히 세계 8대 선진국이 된다고 공언하고 있다.

통합한국 실질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작년 한국(남한)의 8천 630억 달러의 7배가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1위는 중국(약 70조 달러), 2위는 미국(39조 3800억 달러)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로 얻게 되는 위대한 민족의 시너지

첫째, 현대의 엘도라도인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 단숨에 세계제조업 경쟁력을 수직상승할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추정치가 약 7조 달러다.

7조 달러는 달러 당 원화 가치를 천대 1로만 계산해도 대략 7000조 원쯤 된다.

우리나라의 '12년도 예산이 약 310조, 북한의 추정 1년 예산은 우리 돈으로 대략 약 20조, 그러므로 7000조 원은 2012년도 우리 국가 예산의 약 25배, 북한 1년 예산의 약 350배에 해당한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다. 금속광물 자급률이 1%에 그친다. 광물원료가 총 수입액의 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여정에 중국이 동북공정과 북한 자원을 노리고 이미 선점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산인 무산철광은 한국의 모든 제철소가 52년간 사용 가능한 양의 양질의 철광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채굴권이 중국에 넘어 갔다.

'09년 9월 7일 자 파이낸셜 타임지에 의하면 중국은 무산철광 외에 이미 혜산 동광, 용등 탄광, 용흥 몰리브덴광, 은파아연광, 상농금광 등에 대한 50년 개발권 임차 및 독점 계약을 맺고 막대한 북한의 광물자원을 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자원식민지화를 노리며 통째로 먹을 생각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서한만 유전 탐사에도 끼어 들었다. 북한은 서한만 일대에 50억~4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저를 탐사할 자본, 기술이 없다.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변화, 공식적인 경제시스템의 미비로 아직은 중국이 생각만큼

북한을 삼키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점을 노리며 북한을 옥죄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 부두를 5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데 이어 단천항 개발권, 이용권도 북한으로부터 얻어냈다. 동북 3성이 동해(東海)로의 해상 출로를 확보한 것이다. 중국 동북 3성 주민들은 꿈이 실현됐다고 환호한다. 북한 지하자원 산지와 나진항 주변에선 중국자본 주도로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김주영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의 분석이다.

둘째, 북한의 우수한 인적자원은 엄청난 경제활력의 시너지가 나온다.

그 다음 동력은 북한의 젊고, 임금 대비 우수한 생산성을 갖는 풍부한 인적자원이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근면하고 충성심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조직생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머리 좋고 험한 일마다하지 않으며 활기 있는 근로자들이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북한 근로자는 사회적 간접비용까지 합쳐서 월 약 100불이고 중국내 중국인 근로자는 월 약 300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생산성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중국의 근로자들 보다 배가 높다고 한다.

남한의 급격한 고령화, 대안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통일 디자인이다.

이러한 추동력만으로도 통합한국은 약 7~8%의 향후 20년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셋째, 65년 연단된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로 인해 열방의 선교대국이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유의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순교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 피가 분명히 땅에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문을 열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 즉 이슬람, 유대주의까지도 뚫을 만큼 연단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열방으로 힘차게 쏘아낼 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째,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통해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그 후 유증은 아직도 남북을 합쳐 약 170만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엄청난 군비와 상호간의 긴장은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에너지로 돌려야 한다.

양쪽 20%씩 군사와 군비만 줄여도 이 통일비용은 빼고도 남는다. 할 수 있다. 엄청난 민족의 블루오션이다.

무엇보다 세계의 마지막 화약고인 한반도는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공존지역으로 바뀌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여섯째, 통일은 우리 나라가 다가오는 21 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을 해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념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자유화, 복지화,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고 바야흐로 세계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중국에게 뺏기지 않고 잡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대단할 것이다.

남북통일로 철로가 대륙으로 빽빽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을 해저터널로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만 된다면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와 일본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됨으로써 엄청난 관광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세계최대의 자연 보고이다. 분단 65 년의 댓가를 풍요로운 자연생태계를 선물로 받아 세계에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나 배를 이용함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번거로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개통되면 중국대륙이나 유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쪽으로 보다 쉽게 상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그야말로 아시아대륙인과 유럽대륙인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지금 보다 수배 또는 수십배 활성화 됨으로서 다양한 인종간의 교류로 하면서 한반도는 드디어 세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지속적으로 기도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엄청난 선교혁명을 저지하려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깨뜨려야 한다. 남북한의 강력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거룩한 연대로 중보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민족의 저주와 죄에서 벗어날 7000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북한교회 재건운동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예상치 않은 사태로 인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남한교회의 북한교회 재건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혼란 없이 계획대로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방 전 3600 여 개의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라

셋째, 북한복음화를 위한 전위대 70,000 명을 양성해야 한다.

민족을 치유하고, 복음통일을 몰고 올,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복음통일의 선봉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넷째, 북한 돋기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남한교회는 북한 주민의 기아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 사역이 그동안 계속하여 온 북한 돋기 사역이다.

평양 제 3 병원 건립, 치과병원 건립,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CCC 염소보내기, 옥수수 심기, 평양신학교 돋기, 빵공장, 국수공장 세우기, 폐병환자 약 보내기, 자전거 보내기, 농사를 위한 트랙터 보내기, 고아원 돋기,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돋기, 온실 설립, 비닐하우스 재배 프로젝트, 감자를 포함한 식량, 옷, 양말 보내기, 최근의 평양 제 1 교회 건축, 용천 재난 지역 돋기 등 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펴며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아대책 기구, 월드 비전, 우리 민족 서로 돋기, 옥수수 재단 등 남한의 NGO 들 가운데서 많은 기관들이 북한을 돋고 있다. 대부분이 기독교 기관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북한 개방으로 문을 열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

다섯째, 탈북주민 복음화와 돋기이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통해 탈북 자유이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고 그들 중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복음화를 위한 훈련을 받고 그것을 목표로 준비하며 사역하고 있다. 이미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여섯째, 극동방송, 아시아방송의 대북 선교 역할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 중국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한 방송사역은 대 북한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돋는데 있어서 남한교회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통일 준비의 시작은 탈북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많은 사회 정치적 혼란이 발생되어 군부의 개혁과 숙청, 계급의 강등, 내부적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전망을 국내외의 북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11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 중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2012년 3월 26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후주석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하도록 중국 지도부가

북한측에 촉구하고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어 이젠 북한의 개혁 개방은 그들만의 민생문제가 아닌 주변국들의 모든 문제이기도 한 것을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북한에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과연 언제 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왜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가까워진 이 시대에 북한만이 폐쇄된 것은 결국 그들만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립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제발전은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발

전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의미는 북한의 인민들의 생활형편이 더 나아질리 없는 것이고 이는 인민들이 굶주림과 사망으로 고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망한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선전을 했지만 그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더 북한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의 뒤를 이어 3대째 세습을 한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으나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조차 아직 다지지 못한 시점에서 인민들의 민생을 해결 한다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북한생활의 곤란함과 어려운 환경은 북한주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에 숨어 살다가 기회가 될 때 한국이나 미국 등지로 목숨 걸고 입국해 왔다.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 24,309명(통일부)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이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입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강승삼선교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지난해 169개국에 23,331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한다. 탈북자 24,309명의 한국입국과 선교사 23,331명의 해외 파송은 본 필자는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한국 선교사가 해외로 나간 자리에 탈북민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선교사가 타문화권으로 이동을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기후와 음식 및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건강의 악화로 고생을 하며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부 미국의 선교단체는 선교현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일꾼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하여 선교훈련을 하게 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들이 모든 훈련과정을 마치면 다시 그들의 국가로 파송을 하여 사역을 시켰던 예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일부 선교단체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일꾼들을 한국의 신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며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교회는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내 선교를 원만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탈북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이해하며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초기에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하여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일단 모이게 한 뒤 성경공부도 함께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등지의 선교방법에서 실패한 방법들이었다. 탈북민들은 이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했고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참석을 하여야 했다. 그나마 참 다

행인 것은 일부 탈북민들은 예배와 교회의 프로그램을 잘 소화해 내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 바탕을 잘 마련해 나갔다. 하지만 어떤 탈북민들은 생활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와 교회의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생활비를 주는 곳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 버리곤 했다. 탈북한 주민 29명을 대상으로 이단교회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무려 7명이나 이단교회를 다녔다고 그들을 밝혔다. 그들이 이단교회로 옮기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이 물질의 문제였다. “한국교회가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그들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대할 때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의 발은 이단교회에 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을 한다.

다른 이유 하나는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에게 언어적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29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18명이 함경도 출신이었다. 북한에서의 함경도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그 지역의 민심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특별했다. 그 이유는 함경도 지역은 지형이 험난하며 산이 많아 교통이 좋지 못한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펑박이 많은 곳이기도 했고 중앙정부에서 늘 관심 밖의 지역으로 인정이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발전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에는 북방 오랑캐들의 출현이 잦아 늘 긴장 속에서 살다보니 기질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강인함은 생활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어투의 언어적 표현도 많다. 우리가 잘 아는 “간나”, “종간나”등의 말이 이지역의 언어이다. 황해도나 평안도 출신의 탈북민들의 언어는 다소 한국의 정서와 맞는 경우가 많다.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들은 황해도와 평양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앞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싫고 좋아함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북민 출신의 많은 수가 함경도 출신인 가운데 그들의 언어적 형태는 속의 말을 다 해버려야만 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언어적 표현은 한국 교회에게 상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대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탈북민은 통일 한국시대의 첫 번째 주민들이다. 한국의 선교사가 나간자리에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일까?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6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북한의 내부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는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고 김정은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방어를 위해 전후방의 군인들의 근무 위치를 교체까지 하며 탈북을 대대적으로 막고 있다. 중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변방지역에 탈북민들의 중국행을 막기 위하여 많은 함정을 파 두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구덩이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은체제가

되면서 구덩이 속에 대나무로 만든 죽창도 꽂아 두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탈북민에 혼북한의 체제가 민감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이 위험한 길을 뚫고 한국으로 오게 된 탈북민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강하다. 정말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가난하고 인권도 없는 척박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며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험난한 북한의 지형을 이겨내며 곳곳에 숨어있는 국경 수비대를 통과하여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 해 버리며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특수부대원들이나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까지 다 겪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그들이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리더쉽이 생겼다. 내가 고생하며 걸어온 이 길을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다른 식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민은 본인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북한에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한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숨 가쁜 순간순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주셔서 살 수 있었음을 탈북민들은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29명의 조사 대상자중에서 무려 28명(96.6%)

이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 개방을 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겨 내파(Impllosion)되든지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은 탈북자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조사 대상자 중 29명중 15명(51.7%)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공부나 신학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북한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교회안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탈북자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탈북자를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게 되면 그들이 결국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 복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사로 인한 통계결과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기대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대형교회의 경우는 탈북자들의 모임장소를 콘테이너 박스하나 내어 줄 정도이거나 지하 주차장 옆 사무실이나 소 예배당을 내어 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정부보다는 교회가 더 믿을만한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애써 공부를 하기 원하고 준비된 사명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외형적인 모습만 맘모스처럼 크게 만들어 버린 교회들은 은행 빚에 허덕이며 선교하기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실정이 되었다. 교인들이 힘들게 벌어 구별되게 드린 예물은 고스란히 은행 직원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실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자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사람 살리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큰 덩치를 만들어갔고 그들의 몸은 더욱 비대해 져서 자신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비만 종종 환자와 같다. 이젠 그들은 실컷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큰 비용을 들여 휘트니스에서 살 빼는 일을 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비대해진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이 덩치 큰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탈북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와 그들을 대하는 선교사와 한국정부의 복지정책 및 한국의 정착만족도 등을 조사해 보았다. 당연히 선교사들에게 높은 점수가 나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가장 높은 점수는 한국정착의 만족도(78.4), 그리고 다음은 한국교회(76.7), 마지막은 정부정책(70.6)과 탈북민에 대한 선교사 대응(70.6)이다. 한국교회와 선교사의 탈북민에 대한 대응이 복음적이지 않은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지 않았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결국 교회의 선교적 복지정책 수준이 국가에 비하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 소 교회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사역을

잘 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전체를 탈북민들을 위한 장소로 내 놓으며 함께 교회에서 먹고자며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의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다. 목회자는 자신의 힘을 그곳에 다 쓸으며 부족한 재정을 털어가며 섬긴다.

탈북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가족처럼 인정해 줄 이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적 정서를 이해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직업기술을 가르쳐 줄 손길도 필요하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선생님도 필요하고 컴퓨터 선생님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손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들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공부를 시켜줄 학교가 필요하다. 기존의 신학교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한국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대부분 탈북민들의 호소는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의 형편에 고려하여 필자는 탈북민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정도 밖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내에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사명자로 가기를 원한다. 교회의 선교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난 11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괴뢰들의 비열한 모략과 회유책동으로 남쪽땅에 끌려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혁 부부와의 국내외기자회견이 8일 인민 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그들의 방송을 통하여 한국에 전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일이다. 지난 6월에도 남한에서 박인숙이라고 이름을 사용하던 탈북민 박정숙씨가 북한으로 재입북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국내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한 큰 교회는 2013년부터 국내사역도 선교사역으로 인정을 해서 다문화 가족 사역자라든지 탈북자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외국에 나가 사역을 하는 선교 사들과 같이 정식 파송을 하기로 결정 했다고 그 교회의 한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필자는 들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9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가 50,000명이라고 밝혔다. 적은 수가 아니다. 이 숫자적 통계는 이젠 한국도 선교지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너무 먹어 비만의 몸으로 거대해진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 성장의 표준 잣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 비만 환자가 자신의 거대한 몸을 키가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면 그 비만한 몸을 보고 대단하다고 부러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좀 덜 먹고 몸 관리를 잘 한 교회는 민첩하게 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결국 없어질 성전에 투자를 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교 강국으로 가는 한국교회의 자름길이다.

선교지 대한민국!



“주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탈북민 이사라

갈보리 선교교회

총신대 신학과 입학예정

저는 북한땅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김일성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집은 당의 품 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 김일성 김정일 수령이 없으면 북한땅도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옆집식구들이 무리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의 수령이고, 아버지인지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 나서면 먹지 못해 빠만 남아 앉아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장마당에서는 땅에 떨어진 음식찌꺼기를 주어먹고 쓰레기를 뒤지는 꽂제비들과 병에 걸려 죽고, 굶어서도 죽은 수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산과 들

로 가서 풀을 뜯고 바다에 가서 미역을 주으면서 정신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산과 들의 풀도 먹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뜯어서 그나마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고 미역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사는 왜 그리도 안 되는지.

가물어서 가느다래진 옥수수 잎사이에는 시커먼 대벌레가 기어 다니면서 잎사귀를 다 먹어버리고 배추와 야채도 줄기만 남겨두고 다 짙아먹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전염병들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도 파라티브스라는 병에 걸려 온 몸이 불덩이가 되어 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앓던 날이 몇 날인지 겨우 눈을 떠보니 어린 7살짜리 둘째 아들이 제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에

갈라 터진 입술을 겨우 움직여 물어보니 배고파서 운다고 하였습니다. 내 몸조차 겨누기 힘든 상황에서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습니다. 전 큰아들을 불러 밖에 나가 풀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그리하라고 말을 하고 또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감긴 제 눈으로 어렵잖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두 아이들이 풍로불에 무언가 하는 것이 어렵잖이 보였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다 익지도 않은 물보리를 불에 그을려 먹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앓으며 누어 있다 보니 돈 한푼 벌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온 집안 식구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행여나 배급을 주는가 하여 직장

아, 나는 언제 엄마구실을 제대로 할까? 온 집안식구들이 밥상에 함께 모여 앓아 웃으며 먹는 그런 날, 저녁에는 옛말해주면서 살 그날은 과연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해 오던 저에게 몇 년이 되도록 이 대책 없는 생활을 하게하는 김정일의 정치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니는 일)에 나섰지만 그것도 잘 팔리지 않아 돈이 없어 둘째 아들에게 가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아, 나는 언제 엄마구실을 제대로 할까? 온 집안식구들이 밥상에 함께 모여 앓아 웃으며 먹는 그런 날, 저녁에는 옛말해주면서 살 그날은 과연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해 오던 저에게 몇 년이 되도록 이 대책 없는 생활을 하게하는 김정일의 정치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석탄을 팔기 위해 추운 겨울 보위대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가슴까지 올라오는 물을 건너 다니다가 제가 병이 찾아 왔습니다. 설사를 하게 되고 빈혈로 쓰러지고..... 이리다가는 다 죽는다는 생각에 황해도에 있는 친정 아버지에게 도움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영양실조에 걸려 누워있는 둘째 아들에게 그나마 남아 있는 돈을 다 털어 사탕 한 알을 사서 입안에

에 나가 살아 가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살은 다 빠져 버리고 눈만 남은 아이들을 쳐다 보는 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리다가는 옆집 흥이네 식구처럼 다 죽겠구나 생각되어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세워 일어나 풀이라도 뜯었지만 풀만 먹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둘째 아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큰아들을 데리고 석탄벌이(탄광에서 석탄을 40-50KG정도를 사서 어깨에 메고 이곳 저곳에 팔러 다

넣어주며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먹을걸 가지 고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살이 다 빠져 눈만 남은 아들은 겨우 모기 소리 만한 목소리로 “엄마 빨리 갔다 와야 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이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몇 일을 굶어가며 겨우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에 도착하니 혼자 사시는 아버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먹을 것 가지고 돌아올 저를 애태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단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간다는 것이 한 달 만에야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둘째 아이는 무엇이라도 주어 먹겠다고 밖으로 나가 버렸고 전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다니며 수소문을 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에 쥐약을 사가지고 와서 물에 풀어놓고 전 큰아들에게 "우리 이젠 다같이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불잡고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돈도 벌고 동생도 찾아 같이 살아요"라며 절 설득했습니다. 큰아들과 전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소설책에서 보았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여자들이 오뉴월에도 하늘에 대고 하소연하면 서리가 내린다'는 그말이 떠올라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전 소리높이 울부짖었습니다. 아, 나는 이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그 어떤 위대한 누군가가 이세상에 과연 없단 말인가?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별의별 일을 악착스레 했지만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한동안 형편이 어려워 큰 아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형편에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남자는 의무제로 군대에 나가야 합니다. 큰 아들도 남들 가는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자신은 지금 늑막염에 걸려 있

고 당장 옆구리에서 물을 뽑아야 한다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제 눈앞은 캄캄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남동생이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늑막염에 걸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제 아들도 그 병에 걸린 것 이었습니다. 앓아도 특별한 약이나 영양보충을 해 줄 수 없는 인민군대. 그곳에 그냥 놔 두면 내 동생처럼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걱정에 전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리며 돈이라도 좀 빌려 볼까 하여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했습니다. 제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며 아픈 환자인 제게 돈을 빌려 주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잊어버리고 그나마 남은 큰 아들을 위해 엄마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온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몇 일 밤 아들 걱정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긴긴 밤을 고민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바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자. 그리고 이 아픈 몸도 그곳에 가서 고치자' 전 중국으로 도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 독한 마음을 먹고 어느 눈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중국 땅으로 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 중국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혀 북한으로 끌려 간다는 소식은 제 귀를 긴장하게 만들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제 자신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거리에도 제대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보다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동생이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 동생은 저를 안전하게 심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던 중 중국을 떠나 방콕에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한자매가 와서 누워있는 저의 배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 하나님이 누구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신입니다”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전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일행은 안전하게 한국에 잘 도착하였고 “하나원”이라는 것에서 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알려 주었던 자매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전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던 머리의 통증도 다 없어졌습니다. 전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온 전 큰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면 돈을 벌

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던 것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다 감추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하며 지내던 저에게 늘 불편한 마음이 생겨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한 분의 선교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일만큼은 일을 하지 말라고 제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선교사”라는 이미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북한에서의 선교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무서운 사람, 뿔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쁜 인식 탓에 그 선교사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함께 가지 않았고 그들이 도움을 준다고 해도 쉽게 승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주는 선교사님은 북한의 교과서에 나오는 무서운 선교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가 아파할 때면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다 주고 가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시는 것이 너무도 진정 어린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열린 제 마음은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 일들은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돈이 넉넉해서 늘 좋은 걸로 사주고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 선교사님 집에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깜짝놀랐습니다. 자그마한 방에 돈을 아끼느라 난방도 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어렵게 살면서도 저희들을 챙겨주시는 선교사님에게 미안하고 존경이 갔습니다. 제게 비친 선교사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나와있으면서 중국에서 같이 살던 중

국인 남편에게 가려고 여권도 다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속이 심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떠날 때 그곳에서 함께 지내던 탈북한 자매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참 힘이 된다고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찾았으나 모두 숨어살다 보니 집에 없었고 그들의 중국남편들은 한국에 데려갈까 두려워 제가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자매를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걱정이었습니다. 성경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전 한국으로 돌아가면 신학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대일 양육공부를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기지 않아 정말로 속이 탔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의 제 마음속에 들어와 믿어지게 해달라고 소리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부터 한국에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북한에서 중국으로 혼자 넘어올 때 와 중국에서 태국으로 올 때 그 무서운 물도 무섭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의 눈물이 걸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이때 까지 꽁꽁 뭉쳐 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신학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 저에게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저는 신학공부를 열심히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저 북한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저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한 낯 인간이 신으로 등장한 저 북한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북한 땅에 가서 눈물과 상처 투성이인 아이들과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기를 원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나라가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12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 민족의 명절 추석기간에 4박 5일의 일정으로 Universal Care 선교회 후원선교사 정태화 목사님의 사역지인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로 월드와이드 미션 주관으로 참여하여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위해 준비된 땅 연해주의 영훈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이 연해주 우스리스크를 주목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 마을에서 의료, 교회학교, 전도집회, 문화사역,김장담그기 등 풍성함이 넘치는 아웃리치였습니다.

“2012 러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박수경

주안장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 U 치과 치위생사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막 12:33)”

2012년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웃리치를 다녀 와서 말씀을
다시 되돌아 보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8년 3월, 20살의 대학생
되어 치위생학과에 입학 할 때부터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의료선교를 2012년 9월, 꼭 5년
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에서
보냈던 하루 하루가 생생하고, 처음 다녀온
아웃리치였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첫 직장인 연세 U 치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병원,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세 U 치과로 부르셨고, Universal Care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대학원과 치과를 오고 가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아웃리치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웃리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놓치지 않고 듣고,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두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세번째는 의가 드러나지 않고, 모든 사역에서 낫아짐과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 하실지 참 궁금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러시아 우수리스크를 향해 떠났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남들은 편히 쉬고 있을 추석 황금연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이 곳에 왜 가야할까?라는 물음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제 모습에 실망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 주신 세가지의 마음,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첫째날, 둘째날의 사역을 마치니 마음은 참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마음 한 구석이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싶고, 보내신 목적을 알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여행을 온 건지, 봉사하러 온 건지, 사역 하러 온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둘째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 집회시간에 기도를 하며,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세가지 마음들을 다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셋째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 이예요. 오늘은 꼭....”아웃리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류비트바스...아멘...
아멘...” 짧은 시간 동안, 서툰 러시아어 실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온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치과진료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도하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하실 많은 일들을 기도하였습니다. 뒤돌아보니 3 일 동안의 치과 진료사역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더욱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복음의 땅,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신 것과 저에게 치과위생사의 비전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병원에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비전파워 청소년 선교단체 사역을 하며, 이 사역만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이라고 생각한 저에게 또 다른 선교의 비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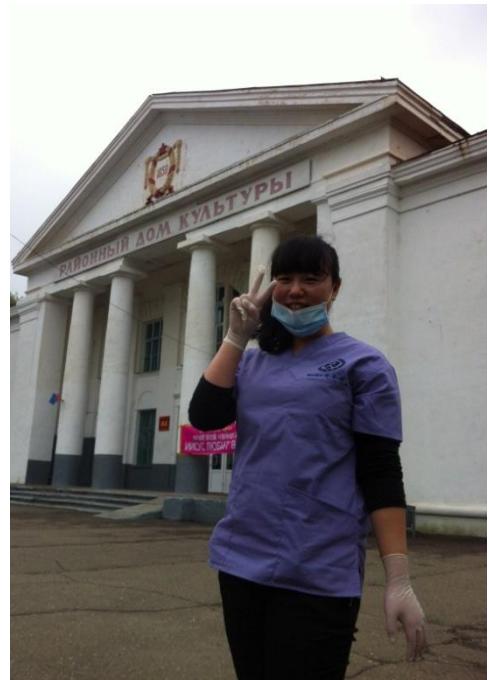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더 넓은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 러시아 아웃리치는 참 소중한 시간 이였고, 또 다른

이 말씀이 제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넷째날 저녁집회의 감동과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 볼 때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전한 일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러시아 아웃리치를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Universal Care 를 통해서 첫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어 감사드리고, 함께 다녀온

협력하였기에 선을 이루셨고,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그리고 함께한 Universal Care 지체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오랫만에 연락을 드립니다!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톱 나다누 선교사



오랫만에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모두 잘 있습니다. 금번 학기 신학 강의는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11 월 말이면 금년 강의가 마무리 되며, 졸업생들은 졸업 논문과 함께 내년 졸업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공사 때문에 너무나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 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인부로, 때로는 흙 묻은 신발로 이곳 저곳 건축 자재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러 다니며, 때로는 밥을 끓여 인부들을 먹이는 식당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공사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비와 또 빨리 찾아온 추위로 공사가 어려웠을 텐데, 올 해는 너무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1/15) 기초 공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봄이 되면 금년에 해놓은 기초 위에다 벽돌을 쌓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안부 부탁드립니다.

로스톱에서 김우섭 목사 드림.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제 점점 이 곳을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이 곳 필리핀 바기오에 오자마자 기도편지를 쓰던 때가 기억납니다. 얼떨떨함과 긴장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뒤섞여 무언가 편안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쓰며 살던 그러나 뭔지 모를 내 마음속의 답답함으로 산책을 해도 책을 읽어도 몸이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이젠 편안해진 일상들 속에서 내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하늘도 산도 우리집도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져 한참을 음미하며 감상하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캠퍼스 안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저희들을 향해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내는 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바기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1. 각종 김치를 담궈 보다. – 한국에선 파송교회에서 해마다 김장김치를 주셨습니다. 김치가 떨어지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맛난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단 한번도

김치를 담궈본 적이 없는 바보주부였습니다. 파송교회도 시어머니도 안 계신 이곳에서 전 과학 실험하듯이 김치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물론 대박이었지요! 하하하! 제가 담궈본 김치를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부추김치, 백김치, 물김치! 많지요? 저 자신이 살짝 자랑스러우려고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 GBA(아이들 학교 이름) –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신 학교입니다. 해나와 리나가 다른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교실에서 서로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레벨의 아이들은 모두 한 교실에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개별적 학습 시스템이라 저희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이 문화, 언어, 관계적 측면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저희들은 거의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3. 우리 집 – 아침마다 우리 집 문을 열면 설악산 중턱의 한 콘도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햇살과 바람과 주위 경관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저희 가족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살아본 것 중 가장 넓은 집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가전 제품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짐과 가재도구가 많지 않았기에 청소하기도 쉬웠고 집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채플 – 매일 11 시 30 분에 드리는 예배는 약 25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드리는 국제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는 영어는 국제 영어입니다. 중국 영어, 필리핀 영어, 사모아 영어... 이런 식으로 각종 액센트에 각자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은 특유의 영어표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겨우뚱거릴 때도 많았지만 이젠 이런 것들도 정겹게 느껴집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루 종의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자유자재로 개인기도를 하는 광경을 봅니다. 저희들은요? 당연히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기도를 한답니다. 모국어 사랑, 나라사랑!! 헤헤헤

필리핀 속으로

자기 전 저(안수아)의 핸드폰으로 저희 집
아떼 (설명은 조금 후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Ma'am I'm sorry about medical. Did not yet finish. I'm very shy a while ago I see you are crying. Don't worry ma'am. I'll make it on Mon-day after work 4:30. If you still me to hire"

뛰엄뛰엄 틀려가며 저에겐 보낸 영어로 된
문자였습니다.

어느덧 여기에 온지 4 개월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의 튜터 선생님과
저희가 있는 학교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희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떼 (원래는 손 위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가정부(house helper)의 의미도
있습니다.)를 고용하기로 말입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어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이 곳에 왔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다간 나중에 저희들에게 감히 필리핀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양코

없는 짠빵'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떼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온지
3 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 곳은
작은 학교에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마을을
형성하여 사는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일하는 아떼와 튜터들은 건강
검진(특히, 결핵과 간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튜터는 본인이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기도 하지만, 경제 상태가
열악한 아떼들의 경우에는 그 아떼를
고용하는 사람이 대신 그 건강 검진비를
대어주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어제 아떼 아주머니에게
건강 검진비와 함께 검사를 위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2 시간 정도를 일찍 보내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떼 아주머니는 한 개의 검사만
받고 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은 쓸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떼 아주머니의 딸도 일자리가
필요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3 년 동안
바레인에 가서 모은 돈도 남편의 도박으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떨어져 살았던 시간은 7 년이나
되었습니다. 31 살 된 딸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마음속에 돈으로 인한 걱정이
너무나 저에게도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이 뭐냐고 했더니 돈 많이 벌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싶지만
만료된 여권을 새롭게 만드는 돈은 너무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장벽으로 인해 이리저리 둘러대는 아떼 아주머니와 막막한 아떼 아주머니 딸의 인생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떼 아주머니는 자신이 건강검진을 하나만 받고 와서 또 자신이 검진 비용 금액을 속여서 내가 속상해서 운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이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담긴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 곳에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야겠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기도편지를 받아보는 파송교회, 협력교회, 기도 동역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저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영광을 그들이 또 제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더욱 더 간절해지는 순간 순간들은 며칠씩이긴 하지만 혼자만의 조치를 취하며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내 안의 열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책을 덥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열망하고 노력하고 자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속의 바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입니다. 조금 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습하는 것입니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기에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생기는 작은 오솔길들을 하나 하나씩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열망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작은 삶을 하나씩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성큼 지나 작은 삶이 모여 크고 긴 삶의 형태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순길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망도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선을 이루어가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작은 열망’ 하나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리요's Story

천상 필리피노, 해나와 리나



얼마 전 해리(해나, 리나)의 학교에서 창립 30 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나, 리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찬양 메들리를 부르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무대에 교복을 입고 올라간 해나, 리나의 얼굴을 보며 한없이 흐뭇했습니다. 연습한대로 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춰 부른 것도 대견했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해나, 리나가 다른 필리핀 아이들과 얼굴 색깔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전혀 한국아이들처럼 보이지 않고 그들의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1.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고결함으로 살아가는 천.수.해.리.요가 되기를
2. 이후 일정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한걸음씩 전진하기를(한동대

언어학 과정 입시 원서 접수, 입학 시험, 집 구하기, 아이들 학교 알아보기, 요한이 어린이집 만나기)

3. Verna 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잘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을 위하여, 또 그 안정된 직장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도박과 유흥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끊을 수 있기를)
4.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단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각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자라가기를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I

“가을 소식 – B 국에서”

주바울목사

B국 선교사



평안하신지요? B 국에서 다시 문안 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시즌이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
아닐까 합니다.

이곳도 단풍은 없어도 지금부터 한 달 정도가
활동하기에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 막바지 8 월 하순에는 시외 D 지역에서
청년들 30 명 가량을 대상으로 훈련사역이



D 지역에서 진행된 청년 훈련사역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 월 초에 이곳 H 시에서 B 국 성서
유니온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B 국
북부 지역에 성서유니온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된 사역이었습니다. 저의 목상사역이
성서유니온 사역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카페에서 이를 동안, 오전, 오후, 저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시작하기 며칠
전, 갑작스럽게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카페 주인으로부터 최근에 1 층에 사복경찰이
자주 와서 동태를 감시하여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종종
훈련 모임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장소 광고가 다 나간 상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참여자들이 오고 갈 때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카페의 손님으로 드나드는 것으로 하여, 카페의 맨 위층에 따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진행하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곳의 전통적인 공인교회 교단관계자(CMA)와 가정교회 연합(HCF) 목회자들이 약 30 명 가량이 참여하였고, 또 청년사역 지도자들 또한 30 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장차 이곳에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현신자들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H시 성서유니온 대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성경에 정통한 성경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 육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말씀육상의 시간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삶 속에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서 신앙의 권면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육상 시간 안에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날마다 만나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 월부터 저의 목상사역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과 말씀육상의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기에, 이제 목상사역 부분, 특히 목상집(매일성경)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의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점차 위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말씀을 더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쳐 나가는 일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일의 한 부분에 목상 훈련도 여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22 일에는 목상사역 전체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7 명). 이 만남을 기점으로 위임의 과정이 합당한 시간과정 속에서 점차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위에 말씀 드린 대로, 묵상사역이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잘 위임되게 인도해주옵소서(올 연말까지 혹은 내년 연초 생각). 위임의 일들과 과정 속에 주께서 관여하옵소서.
 2. 묵상사역에 참여하게 될 두 분의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좋은 화음과 동역 속에 진행하게 하옵소서.
 3. 주일에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인도해주옵소서.
- 기도와 관심, 응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철 드림.

선교지에서 IV

남아공에서 전해드립니다.

배성호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
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
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
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
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삼상 12:22~25)

할렐루야!

2012년을 시작하며 예수생명교회 (Life of Jesus Church)에 주셨던 “그런즉 누구든지 그
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
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
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17~19) 말씀
을 불들고 우리의 풋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오
게 하신 것 감사 드립니다.
지나온 길들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
의 영광을 위하여 남아공의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고국 대
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고백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 기도 하는 사람들

제가 있는 남아공의 포트엘리자베스는 아프리
카대륙의 가장 아래에 자리 잡은 국가의 도시

입니다. 해변에 자리 잡은 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대륙을 향한 선교의 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의 선교의 역사 속에 아프리카대륙의 선교의 문을 여신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대륙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기도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포트엘리자베스에는 9분의 선교사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두 분은 고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중남부아프리카 선교사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면서 대회 준비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2012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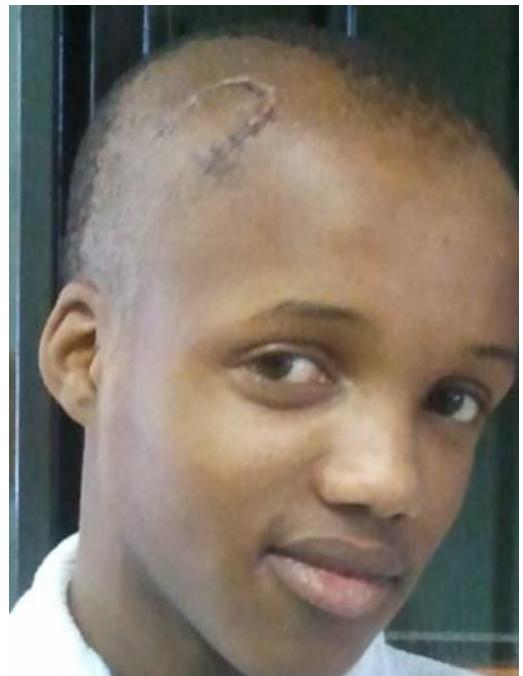
매주 월요일, 수요일 아침,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삼 일을 모여 기도 하는 것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금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모두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둑은 땅을 기경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 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연합시켜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목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인 자리로 나아가 그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 하시는 그 분의 방법과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서로 연락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합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 봉가니를 살리신 하나님



봉가니는 예수생명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에 출석한 소년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

등학교 2학년 때에 공과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한 일이 있습니다. 봉가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무리들이 동요하며 탄성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코사족의 언어를 이해 하지 못했던 저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탄성과 동요는 봉가니가 사용했던 언어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용했던 언어는 영혼을 올릴 만한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봉가니가 이제 자라나 초등학교 7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중 봉가니의 삼촌이 찾아 오셨습니다. 전날 봉가니의 뇌혈관이 터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 병원으로 갔지만 중환자실에 있던 봉가니를 면회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의 리더들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여 봉가니를 위하여 기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봉가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1주일을 보내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봉가니의 삼촌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날 아침 의사가 전화를 통해 퇴원해도 좋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리더 몇 명과 함께 봉가니의 퇴원을 위해 달려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희들을 봉가니는 병원입구에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건강한 봉가니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질듯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의 생명을 얻은 봉가니가 이제 동네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음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를 돌이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직 기도 드리는 것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영적으로 남과 달랐던 봉가니가 상고마 훈련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봉가니가 그 일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봉가니를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려 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3~17)

3. 예수생명교회의 건축

지난 6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교회에서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2008년에 작은 교회를 건축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1 12월 예배당을 현지 교회에 이양하였고 새로운 예배당을 찾던 중 고국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현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예수생명교회의 건축을 통하여 포트엘리자베스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진정한 화합과 연합의 장을 더 크게 여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건축을 위해 헌신적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분이 살아계심을 현당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연합하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당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 상고마에 (무당) 묶여 있던 영혼을 치료 해 주신 하나님

이곳의 상고마는 우리나라의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남아공의 영적 상황은 질병의 치료, 물질의 어려움, 자손의 번영을 상고마들이 가져다 준다는 의식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도 삶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상고마를 찾아 해결하려 합니다. 예수생명교회의 리더 가운데 Nonelela (노넬레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는 그 어떤 청년 보다 교회 일과 기도에 앞장 서곤 하였습니다. 봉가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한 것도 그 자매였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돋기도 하였습니다.

11월 1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리더들의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넬레라 자매의 어머니께서 교회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넬레라와 현재 갈등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딸 노넬레라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노넬레라 자매는 헌당예배를 드리기 3주전부터 새벽 1~1:30분 사이에 머리가 둘로 갈라질듯한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온 가족을 밤마다 깨우곤 하였고 교회의 리더들 몇 명에게도 그 고통을 호소하곤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아 2주가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어머니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자매는 계속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

니에게 상고마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리 낙제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자매의 불만은 더 커지고 급기야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던 바로 그 날 저는 자매를 상담하며 기도 해 주었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네가 지금 상고마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너는 영원히 상고마의 자식이 되겠고 네가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6일 후에 드릴 헌당예배에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하여 기도 드릴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라 믿고 기도 모임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6일 동안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 하였습니다.

헌당예배를 드리던 날 자매의 할머니께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일거 수 일 투족을 지켜 보셨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에 자매를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하여 기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매 또한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불순종한 죄는 고백했지만 우상숭배의 상

정인 상고마를 의지하려 했던 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또한 흐렸습니다. 저는 일순간 모든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자매는 끝내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나음을 받았다는 어떤 징조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온 시각이 저녁 6시를 넘었습니다. 현당예배에 동참해 주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모여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는 예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리더들과 함께 강평회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 건축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현당예배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제 노렐레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간 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하고 집 안의 일을 마친 시간이 8시였습니다. 그 날 따라 너무 피곤함이 몰려와 8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새벽 1~1:30분 사이에 3주 동안 계속되었던 머리가 갈라질 듯한 고통이 없었

고 아주 평안한 잠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가족 역시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시간 속에 저는 자매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상을 숭배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입을 열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강평회를 마치고 자매의 집을 심방하여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매를 통하여 방문할 것을 알렸고 심방을 하락 받았습니다.

집을 들어서는 입구에 어제 현당예배에 참석했던 할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셨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어제 밤의 일에 대하여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매가 간증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알고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과 갈급함 그리고 열망과 열정적인 기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함 속에는 내가 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에는 나의 영적 갈급함도 있지만 나의 육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갈급함도 있습니다. 열망적 기도에

는 나의 욕망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정적 기도에는 열심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우를 범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비전도 계획도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나의 지식과 가진 소유도 완전히 내려 놓고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목적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기준 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롬 11:33~36)

노벨레라의 가족들의 증언을 듣고 집을 나설 때 자매의 할머니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나의 뇌리를 울리며 남아 있습니다. “상고마의 치료와 하나님의 치료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순간 저는 자매의 가정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매의 할머니는 몸이 아플 때마다 상고마를 의지 하였고 그들은 그녀를 치료 해 주므로 인해 우상의 종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단호하게 자매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안

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날 당신은 우상을 택하던 하나님을 택하던 그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한 날의 모든 일들을 잊고 있을 때,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 아프리카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 남아공의 피이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 그리고 2012년을 시작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 깊은 교제와 말씀에 전무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로 화합하게 하셨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곳,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곳,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계셨고 그 분의 지대한 관심은 이 땅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이곳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 또 하나의 은혜의 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12년 12월 10~21일까지 “십자가 복음학교” 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하

셨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 이 땅의 회복과 부흥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학교,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은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으로만 가능 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은 온 땅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전인격을 다해 동참하려 합니다.

6. 가 정

건축이 시작되고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가정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상을 찾아가고 있으며 다시 가정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덧 큰 딸 영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은이가 무엇을 하던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영은이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 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받게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은이는 장차 선교사로서 일하게 될 일군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인 저의 세대를 뛰어 넘는 선교사, 영적 군사로서 저의 세대를 뛰어 넘는 강한 용사로 성장해 가길 기도 드릴 뿐입니다.

지은이가 2년 후면, 하은이가 3년 후면 모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입

니다. 아내 한은경 선교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는데 이제는 치아가 많이 상해 음식을 잘 씹지를 못하여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 볼 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말씀 하실 때 우리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영은이의 대학 입학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의 지식과 소원과
우리의 열망과 갈망과 갈급함으로부터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다.

믿음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자원, 곧 가진 모든 소유와 지식,
그리고 상식과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절대기준
우리의 삶의 절대목적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섬기시는 모두 교회가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로 평안을 빕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

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부흥이 모든

남아공에서

동역자들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

배성호 한은경 배영은 배지은 배하은 올림

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로스톱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1. 신학교 사역을 위해

- 1) 한 학기 동안 강사들을 통해 은혜로운 강의가 진행 되도록.
- 2)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 지도록.
- 3) 타간록시에서 계속 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위해 (현재 8 명의 신학생이 공부 중에 있음)
- 4) 7 명의 졸업 예정자들이 논문 등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내년 2 월 졸업 하도록.
- 5) 신학교 사역에 협력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위해.

2. 교회 사역을 위해

- 1)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주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 2) 성도들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 하도록
- 3) 선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3. 가정을 위해

1) 지민이의 진학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예정임). 현재 11 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년 9 월에 학력 고사를 치뤄야 함.

2)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여름 몽골 단기팀들이 뿐린 사역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2. 이양해준 온 민족 추수교회와 모직 목사가 목회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3. 지방 교회가 6 개가 지난해 더 자립 하였는데 남은 교회들이 더 자립하도록
4.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5. 가을학기에 베자니아 크리스챤 대학에 몽골인 학생 45 명을 잘 가르치도록
6. 계속되는 미국 사역속에서 몽골교회들이 개척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예수 생명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
4. 2012년도 비전을 위해서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키즈 예배와 리더 루슬란 전도사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하나님께서 연해주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해주에 많은 길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베트 교회도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연해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

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 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홀로 계속되는 사역에서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10 월 첫째주부터 건축을 시작할 예정인데 필요한 재정이(4,000 만원) 모금되고 속히 완공되도록

4. 건축 중에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충만해지도록 .



|| B 국
주바울 선교사

|| 필리핀 양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1. 새롭게 양육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자라도록(네니따, 애플, 제엔, 아이린, 비키, 라이언, 쉘라, 두스)
2. 건축을 준비중인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안에서 새로워지도록

1. 목상사역이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잘 위임되게 인도해주옵소서(올 연말까지 혹은 내년 연초 생각). 위임의 일들과 과정 속에 주께서 관여하옵소서.
 2. 목상사역에 참여하게 될 두 분의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좋은 화음과 동역 속에 진행하게 하옵소서.
 3. 주일에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인도해주옵소서.
- 기도와 관심, 응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1. 사랑의 밥차 봉사 협력자들이 생기도록
2. 쌀 밀가루 협력교회 단체 생기도록
3. 열방이 행복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4. 모든 열방 언제 어디서든 주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 되도록
5. 빈촌 집짓기 준비 중입니다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1.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고결함으로 살아가는 천.수.해.리.요가 되기를

2. 이후 일정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한걸음씩 전진하기를(한동대 언어학 과정 입시 원서 접수, 입학 시험, 집 구하기, 아이들 학교 알아보기, 요한이 어린이집 만나기)

3. Verna 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잘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을 위하여, 또 그 안정된 직장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도박과 유홍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끊을 수 있기를)

4.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단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각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자라가기를

||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한국인 사역자들과 북미권에서 오신 사역자들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안에 연합을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저희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긴 이후 많은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MK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각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분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 자녀들을 어머니와 같이 따듯하게 품는 ANCA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희 기관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어 세월을 아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A국 김아굴라 /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제 2 기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주께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깨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2. 최선생의 건강과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3. 원지,현지가 현지학교에서 러시아어의 진보와 반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4. 4 개월동안 저희가 없는 동안에 A 국의 대표 통신사 MTS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형제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즉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동전화통신사를 폐업시켰기에 갑자기 전화가 끊기게 되었던 것이지요...(이런 일들이 종종 있음)
그들과 잘 연락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5. 키르키즈에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예지,인지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특히 인지는 12 학년(고 3)인데 내년에 한동대 입시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지는 5 학년 대학제로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로에 갈 수 있도록...
6. 저희가 안전하게 잘 체류할 수 있도록
7. 안식년 동안 모집한 후원예정자들이 무사히 착오없이 후원 잘 할 수 있도록
8. 대구동신교회와 광주월광교회에 협력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두 곳 모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2 겨울호 출간**
2012 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겨울호 (통권 13 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12 러시아 연해주 아웃리치

Universal Care 는 2012년 9월 29일(토) ~ 10월 3일(수) 4박 5일의 일정으로 월드와이드 미션 주최의 러시아 연해주 아웃리치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본회 후원 선교사인 정태화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교회 개척과 전도집회, 무료진료, 교회학교 등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3. Universal Care 열방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 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4.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5.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원두우 선교사님 초청으로 베들레헴 시장님, 잭 사라 베들레헴 칼리지 신학교 학장, 베드원 대족장 등 팔레스타인 사역과 관련된 귀한 손님들이 Universal Care member 들과 만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섬길 기회를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6. 선교사 동정

1)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님 가족이 4개월간의 안식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A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 엄천영 선교사님 필리핀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동대에서 훈련 받기 위해 다음주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찾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더욱 풍성해 지길 기도합니다.

7. 제 14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2년 12월 8일(토) 오후 5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6층 로뎀홀

강사 : 김영제 목사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김세웅
신보균, 주혜숙 권현주, 정진호, 최혜원
양태부, 최미영 나성환, 홍은경 박말향
연세U치과, 이레엠티주식회사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장소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기도제목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6. 2013 년 주실 비전과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훨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 년 6 월 23 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9 명의 선교사와 2 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체,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 체체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궁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제14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강사 : 김영제 목사

전 우즈벡 선교사 / 현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교 교장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Universal Care

宣 教 地
大 韓 民 國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앙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아굴라선교사 (A국)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트무르, 나랑체체 전도사

몽골 선교신학대학 : 앵크체체 전도사

통권
13
호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